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강경-제술 논쟁’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윤 하 나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강경-제술 논쟁’을 중심으로-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윤 하 나

인준서

윤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국어과 교육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성장 후 직업상, 사회 활동상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충돌하는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조직 사회 내에서 주재자를 사이에 둔 토론의 경우 공적인 자리에 알맞은 예의와 격식을 담은 토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적 토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위한 준비된 글쓰기(개요 작성)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학교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적 토론을 위한 개요 작성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현행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말하기 준비 과정보다는 실제 활동 위주의 말하기 기술 익히기에 치중하고 있어 말하기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 또한 서구에서 발달 되어온 형식이나 절차만을 소개하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으며, 예시로 든 동시대의 자료는 공적 토론에 알맞은 예의와 격식을 갖춘 토론 양식을 익히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고전 상소문을 활용한 토론 교육을 제안하는 바이다. 상소문은 임금과 신하라는 특수한 관계 하에서 정책에 대한 논쟁을 담은 글이므로 주재자를 둔 공적 토론의 양식을 익힐 수 있는 전범으로 삼을만하다.

본고에서는 토론의 과정 중 입론과 반대 신문에 해당하는 단계에 필요한 개요 작성에 한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설득 화법에 있어서 내용 조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고전 예시 자료의 필요성을 도출해내고, 상소문의 화법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그 교육적 가치를 논하였다. 본고는 토론 교육 활용에 적절한 상소문으로 세종조 ‘강경-제술 논쟁’ 중 나온 김반과 변계량의 상소문을 선택하여, 토론의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 단계에 필요한 내용 조직 원리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소문 분석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거시적인 논증 구조와 미시적인 논증 구조, 논쟁 전략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 토론 준비 단계에 필요한 원리들을 익히고, 이를 직접 활용하여 입론과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소문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인지 상소문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소문은 예의와 격식을 갖춘 토론 형식의 전범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토론 과정과 논변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법 교육적 자료로서 풍부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의 연구가 화법 교육 자료의 질적·양적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방법	10
II. 현행 고교 화법 교육 검토	14
1. 설득 화법에서의 내용 조직의 중요성	15
2. 고교 화법의 내용 조직 교육 현황과 문제점	18
1) 화법 교육 과정의 현황	18
2) 화법 교과서 분석 및 문제점	28
III. 상소문의 화법 교육적 가치	37
1. 상소문의 표현 특성	37
2. 상소문의 화법 교육적 활용 가능성	40
1) 설득 화법 교육적 가능성	40
2) 토론 교육적 가능성	44
IV.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의 실제	47
1. 토론 교육을 위한 상소문 내용 조직 분석	47
1) 강경-제술 논쟁의 전개	47
2) 논증 구조와 설득 전략 분석	50
3) 논거의 유형과 표현 방식	67
2. 교수-학습의 실제	76
1) 논쟁 배경 이해하기	76
2) ‘입론 준비’ 원리 학습하기: 김반 상소문 활용	79
3) ‘반대 신문 준비’ 원리 학습하기: 변계량 상소문 활용	91
4)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의 실제	95
V. 결론	10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제7차 교육 과정 ‘화법의 원리’ 내용 체계	20
<표 2> 2007 개정 교육 과정 ‘화법의 기능’ 내용 체계	25
<표 3> 『고등학교 화법』(세기문화사)에 제시된 내용 조직 방법	30
<표 4> 논쟁 배경 이해를 위한 활동지	77
<표 5> 상소문 구조와 입론 논의 전개 요소의 관련성	79
<표 6>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1	83
<표 7>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2	86
<표 8>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3	88
<표 9> 거시적인 구조 탐색을 위한 활동지	89
<표 10> 상소문 구조와 반대 신문 논의 전개 요소의 관련성	91
<표 11> ‘반대 신문 준비’ 원리 학습을 위한 활동지	92
<표 12>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1	96
<표 13>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2	98
<표 14>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3	99

도 목 차

<그림 1>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입되는 상소문의 논증 구조	46
<그림 2> 문제-원인-해결 조직	56
<그림 3> 동기화 단계 조직	57
<그림 4> 김반의 상소문의 내용 조직과 전략	61
<그림 5> 강경-제술 논쟁의 토론 논변 구조	66
<그림 6> ‘문제 제기 단계’ 의미맵 그리기의 예	8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충돌하고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에서도 표현 능력, 특히 설득 화법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대중이나 집단과의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한 연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 스스로가 국어과목에서 가장 잘 못하는 것을 발표나 토의·토론하기라고 답했다고 한다.¹⁾ 학생들이 대중 화법이나 집단 화법을 어려워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닐까’, ‘두서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등 자신이 말할 내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말하기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지속적인 실패는 다시 심리적 부담감만 증폭시켜 종국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말하기 기회를 차단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말할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일 대 일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말하기에서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상대방과 일 대 일로 대면하여 말하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돌발적

1) 국어 공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중·고등 학생들은 ‘발표하거나 토의·토론하기’가 ‘맞춤법, 표준발음 등 국어지식 익히기’ 다음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05, 18쪽.

이고, 반응과 대답이 짧은 시간에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준비 단계보다는 실질적인 표현 단계가 더 중요하다. 반면 공적인 상황에서 집단과 집단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토론의 경우는 준비 단계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공적 토론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토론의 준비 단계란 주제에 합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과 함께,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효과적인 내용 조직 방법을 활용한 개요 작성, 즉 ‘설득적 말하기를 위한 쓰기’가 이루어진다. 이는 사고의 진행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쓰기를 통해 내용을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직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해나갈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비판을 미리 생각하여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 둘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의 개요 작성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학교 ‘화법’ 과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내용이 부족하다. 개요 작성에 필요한 내용 조직 원리에 대한 방법적 지식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에 의한 개념 설명과 이해에만 그칠 뿐 학생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는 현행 교육이 말하기 준비를 위한 학습보다는 실제 활동 위주의 말하기 기술 익히기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말하기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 교육의 목적은 언어 수행 능력 향상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향상에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말하기 영역에만 국한된 교수-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화법 = 말하기 영역’, ‘작문 = 쓰기 영역’이라는 영역 간의 분명한 경계는 교육 내용과 방법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말하기 교육이라고 해서 말하기 영역에 관한 학습 내용만을 다루고 쓰기 교육이라고 해서 쓰기 영역에

관한 학습만을 다루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가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마지막 표출 과정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거의 동일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학교 교육에서 누락된 토론의 준비 단계, 특히 개요 작성과 같은 ‘말하기를 위한 쓰기’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상소문에 주목하였다.

토론의 내용 조직 원리 학습에 있어 현대의 자료가 아닌 고전의 활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소통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 때문이다. 토론에서 사용하는 설득 화법의 소통 방식 속에는 한 언어 공동체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 언어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화법 이론이나 내용 체계는 서구에서 발달되어온 형식이나 절차만을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교과서의 제시 자료나 이론들만 해도 동시대의 것과 서양의 것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의 토론 문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부족한 점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토론 문화가 우리의 전통 문화와는 단절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모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표현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 목표에서의 고전 산문 전통의 계승과 창조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서양의 언어관은 말의 기법을 중시한데 반해,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입으로 하는 언어를 낮게 평가하고 문어적 의사소통을 더 중요시하여 문장을 발전시켰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 문

회의 오랜 전통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사단철정논란과 같은 형식은 일반 사대부들 사이의 논쟁으로서 개인적인 토론에 해당한다. 보다 공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은 상소문을 통한 조정 대신들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소문은 임금에게 올리는 신하, 한 개인의 글이기는 하나 자신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대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집단적인 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올려지는 상소문은 표면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쌍방의 의사소통이나, 심층적으로는 임금을 주재자로 한 정치적 파벌 사이에서의 논쟁 과정이다. 현대 사회의 조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공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이다. 조직 사회 인사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주재자가 진행하는 공적인 회의 자리의 집단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소문 속에서 오늘날 필요로 하는 토론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상소문은 임금과 신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왕의 감화와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표현 전략이 사용된다. 따라서 상소문의 내용 속에서 다양한 표현 전략과 그 표현의 일반 원리들을 추출하고 이를 구조화한다면 토론 준비를 위한 글쓰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당대의 사고 방식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상소문에서 논자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제반 표현 현상과 원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교육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 상소문의 설득 구조와 표현 전략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주장할 내용을 생성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발견해 가는 초인지적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자로 하여금 고전 산문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분석과 초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설득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로 변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넓은 범위에서의 설득 화법 교육, 좁은 범위에서의 토론 교육에서 상소문을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화법 교육에서 설득 담화로 국한된 연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소문에 대한 연구도 당대의 사상이나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를 살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 방향을 설득 담화 교육에 관한 연구와 고전 산문에서 설득 표현과 관련된 교육적 방안을 이끌어낸 연구, 그리고 상소문의 설득 구조를 파악한 연구,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고자 한다.

설득 담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행 화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대안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대구(1994)²⁾에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언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사고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말하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등학교 국어(상) '설득' 단원에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말하기 지도에서 창의적 사고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기법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 제시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

방인태(2003)³⁾에서는 현행 실용 화법 중심의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어교육의 지향점인 문화 생산으로서의 화법 교육을 모색하였다. 그

2) 이대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방법 탐색(1)-고등학교 말하기 영역 '설득' 단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학』 12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94.

3) 방인태, 「국어과 화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권16, 국어교육학회, 2003.

원리로서 논리성, 비판성, 창의성을 제시하였으며, 연설 토론 교육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현 화법 교육이 실용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생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설, 토의·토론 중심의 화법 교육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창덕(2007)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화법 교육을 위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화법 목표에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인간형·정신과 철학의 결여, 기초 화법 연구의 부족, 체계 논리에 묶여 있는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 방법·평가 방법·교육자료 개발의 부재 등을 실제 중심이 아닌 이론 학습과 기능 훈련 중심의 현행 화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좀 더 실제적인 화법 교육을 위해서 그가 제안한 것은 ‘생명주의’ 철학과 귀납법적 교육 과정 구성, 그리고 체계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습법과 교재 개발이다. 교수-학습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기존의 교수-학습 방안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

현행 화법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위의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행 화법 교육이 화법의 본질과 가치·철학·사고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은 소홀히 하고 이론과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화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공통된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고전 산문 안에서 현행 화법 교육 과정의 보완책으로서의 화법 교육적 방안들을 이

4) 이창덕, 「새로운 화법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 Vol.123, 한국어교육학회, 2007.

끌어낸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서유경(2004)⁵⁾에서는 현재의 말하기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은 말하기의 목적과 본질 보다는 방법론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말하기의 내용 구성을 결정짓는 가치와 같은 철학적인 면과 의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문학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을 제안하였다. <토끼전>의 어족회의와 같은 말하기의 예는 말하기의 목적과 본질, 말하기의 실례, 어떤 말하기를 수용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말하기 교육의 내용을 구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방법론적인 접근에 더 치중해 있는 현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문학이라는 다른 하위영역에서 찾아 국어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으나, 말하기의 본질과 가치, 의도에 대한 교육 내용 확대를 ‘수용’의 측면에서만 집중하여 다루고 있고 ‘표현’의 측면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점이 아쉽다.

서희정(2007)⁶⁾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학습 방법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수업방법이 필요함을 느끼고 설화 교육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설화의 구연성과 말하기 교육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설화를 활용한 학생의 말하기 활동 방안으로 구연과 교육연극을 통한 지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표현과 태도 면에서의 연구만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

상소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소 제도와 당대의 정치, 사회·문화와 사상 등에 대해 주목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소문의 설득 구조나 전략, 문체에 대한 논의가 한문학이나 언론학, 국문학 분야 등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서유경, 「문학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 : <토끼전>의 어족회의 대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1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6) 서희정, 「설화 교육을 통한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한문학 분야에서는 상소문을 문학작품으로서 본격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보인다. 신두환(2004)⁷⁾에서는 상소문을 왕조시대 관료문학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말하며 시나 소설 뿐 아니라 상소문도 문학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예미학적인 면에서 상소문을 비평한 글들을 인용하여 상소문 문체의 미학적 특징을 밝혔다. 상소문의 미학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문장과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논문이다.

성당제(2005)⁸⁾에서도 상소문의 문예미 측면을 연구하였다. 제가(諸家)들로부터 훌륭한 문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약천(藥泉)의 상소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품격과 위상을 살펴보고 상소문에 드러난 문예미와 현실대응논리를 고찰하였다. 신두환에서와는 달리 약천이라는 한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상소문의 전개 과정과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문예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보니, 논증의 구조화나 논거의 유형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 설득 담화를 위한 교육적 요소를 바로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상소문을 정치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는 의견 교환 통로, 즉 언론 활동으로서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인환·이규완(2003)⁹⁾에서는 왕에게 나랏일의 방향을 올린 시무 상소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소의 설득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득 구조 분석을 통해 상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정리하였다. 상소문을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에서 그 표현 방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국문학계에서도 상소문의 설득 구조나 전략을 연구하고자 하는 논

7)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8) 성당제, 「약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 36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9) 오인환·이규완,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3.

의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설득 방식과 표현에 대한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최인자(1996)¹⁰⁾에서는 상소문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설득 방식과 그 표현 특징을 살폈다. 상소문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존재했던 설득행위라는 발화장르적 측면을 초점으로 하여 ‘諫’류 상소문에서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과 전제화 된 문제설정, ‘보편 주체’ 차용 등의 설득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문학 분야에서의 상소문 연구가 이전까지는 문학적 특징이나 개인 사상 연구로서의 접근 정도로만 있어왔던 것에 반해 여기에서는 언어행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염은열(1996)¹¹⁾에서는 ‘간(諫)하는 소(疏)’가 설득적 표현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간타위소>를 구체적 논의의 출발로 삼아, <동문선> 소재 다른 글들로 논의를 확대하여 ‘간하는 상소문’의 설득 방법을 일반화 하였다. 삶의 조건들이 효과적인 설득 표현에 관여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설득적 표현의 총체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득적 표현의 이론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엄훈(2000)¹²⁾의 연구는 현대의 토론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출발하였다. 토론 문화의 미성숙은 서구의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자양분으로 삼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는 우리의 전통 토론 문화 원리를 밝히기 위해 조선 성종조의 유향소 복립 논쟁을 분석하였다. 틀민의 논증 모형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논증 구조를 분석하고, 당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논거의 유형과

10) 최인자,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 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칭어문』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6.

11)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3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12) 엄훈, 「조선 성종대 토론 문화 연구 : 유향소 복립 논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소문 분석에 있어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상소문의 설득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국어교육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의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보니 교육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의 구체적 연구까지 나아간 논의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또한 상소문의 설득 구조를 쓰기에 적용시키려는 논의는 나오고 있지만 같은 표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영역으로서의 활용 논의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3. 연구 방법

앞서 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소문의 활용은 토론의 준비 단계에서의 내용 조직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본 연구도 내용 조직 교육에 한하여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토론’과 ‘설득 화법’이 혼재해서 쓰이는데, 이는 토론이 화법의 한 유형이며 그 중에서도 설득 화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 교육 방안의 제시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논의들은 설득 화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우선 ‘내용 조직’이 설득 화법의 성공 여부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용 조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중요성만큼이나 학교 교육에서 설득 화법 영역의 내용 조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학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현행 고등학교 화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토론은 설득 화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영역에서의 토론 교육의 현황은 물론이거니와 이론 영

역에서의 설득 화법의 교육 현황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내용 조직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교육 자료와 교수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 자료로서 상소문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상소문의 장르적 특성과 전체적인 설득 구조나 표현법을 살펴봄으로써 설득 구조와 전략에 대한 교육적 요소 추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소문의 특성에서 설득 화법 교육적 가치와 토론 교육적 가치를 끌어내어 상소문이 화법 교육의 자료로서도 훌륭히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상소문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선조 강경(講經)-제술(製述) 논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소문 자료를 선정하여 토론에 필요한 설득 화법 내용 조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원리를 추출하고자 한다. 강경-제술 논쟁 과정에서 임금에게 올려진 상소문은 1433년(세종 15) 2월 성균 사예 김반(金泮)의 상소문과 1428년(세종 10) 4월 변계량(卞季良)의 상소문, 두 가지이다. 김반의 상소문은 편론(便論)으로 설정하고, 변계량의 상소문은 이를 논박하는 부론(否論)으로 설정하였다. 시기적으로 변계량의 상소문이 앞서 등장¹³⁾하였으나, 김반의 상소문을 편론으로 설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강경-제술 논쟁은 강경을 실시한 태종의 입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강경론자인 김반의 상소문을 편론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상소문이 강경론자와 제술론자 각각의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논거와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김반의 주장을 강경론자의 주장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소

13) 강경-제술 논쟁은 세종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문과 초장의 과목 문제를 변계량·허조·허지와 논의하는 데서 시작된다. 변계량의 상소문은 논쟁 초기에 허지가 강경이 조종의 성현이라며 강경의 타당성을 입증 받은 데 대한 반론이었다. 이후 문과 초장에서 제술로 시험을 보인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강경론자는 계속해서 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때 나온 것이 김반의 상소문이다.

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변계량 상소의 반론 대상이었던 강경론자의 주장은 당시 상소문의 형태로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강경론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김반의 상소문을 변계량 상소문의 반론 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김반의 상소문에는 변계량의 상소문이 논박하고 있는 사안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편론과 부론의 전개 방식 확인이 가능하다. 변계량의 상소문에서는 아홉 가지의 항목을 통해 강경 시험의 문제점과 제술의 의의를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김반의 상소문에 나타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섯 번째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편론 측 상소문을 통해서도 토론의 입론을 위한 사전 준비 방법을, 부론 측 상소문을 통해서도 반대 신문을 위한 사전 준비 방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상소문 분석으로 추출된 설득 구조와 전략, 논거들을 토대로 토론의 준비 단계 교육에 필요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경-제술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양측의 논쟁자들이 가지는 가치기반과 주장을 확인한 후 토론 준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상소문 분석 활동을 진행한다.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입론, 반대 신문, 최종 변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측 입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사전에 입론과 반대 신문을 위한 개요를 미리 작성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가며 발표할 수 있다. 이때, 김반의 상소문은 입론 개요 작성에 필요한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변계량의 상소문은 반대 신문 개요 작성에 필요한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들 상소문을 각각 모범 예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강경의 실시를 주장하는 김반의 상소문과 이에 반박하는 논리를 가진 변계량의 상소문

이 입론과 반대 신문의 절차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적용한 입론 준비 단계와 반대 신문 준비 단계의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해 볼 것이다.

참고로, 연구 대상인 상소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상소문은 한문으로 쓴 논리적인 글이라는 성격 탓에 학생들이 낯설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작품 선정 시 어려운 사상 논의에 관련된 것은 피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심도 깊은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고 가능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하였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현재에도 교육 현실에서 시험 제도는 교육과 함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시대 과거 제도의 제술과 닮은꼴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입시의 논술은 현대에도 입시철마다 논술모범답안과 요약집으로 편법 대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존재하여 찬반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는 인재 선발 장치의 장단점에 대한 옛 논의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경-제술 논쟁에서의 상소문에 한정하여 설득 구조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조 상소문에 나타난 모든 설득 구조와 전략, 논거의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설득 전략과 논거의 유형에는 본고에서 살핀 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상소문의 설득 구조와 표현 양식을 파악하여 정리함으로써 교육적 자료로서의 상소문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지만, 이를 활용한 실제 교육 방안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II. 현행 고교 화법 교육의 검토

말하기의 일반적인 절차는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내용 생성과 조직 단계는 표현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화법에서는 유창한 표현도 중요하지만, 화법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준비 단계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납득하도록 해야 하는 설득 화법의 경우에는 준비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내용 조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설득 화법 교육에 대한 검토에 앞서 우선 설득 화법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내용 조직이 설득 화법 절차상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는 설득 화법에서의 효과적인 내용 조직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부실한 내용 조직 교육이 초래할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내용 조직이 그 중요성만큼이나 고등학교 화법 과목에서 효과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말하기의 ‘원리’ 영역에 제시된 ‘내용 조직’과 ‘화법 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실제’ 영역에서 제시한 담화 유형¹⁴⁾ 중 토론에 대한 교육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법의 실제’는 화법의 본질, 원리, 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다. 실제에서의 토론의 내용 조직 활동이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실제’는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실제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범주이다. 의사소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 등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설득 화법에서의 내용 조직의 중요성

7차 교육과정해설서의 화법 영역에서는 설득 화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중 화법에서 설득적 화법이란 연설, 강연, 설교 등과 같이 말하는 이가 말(說)을 사용하여 듣는 이의 반응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듣는 이의 반응이란 듣는 이의 신념, 태도, 행동 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¹⁵⁾

여기에서는 대중 화법에서의 설득적 화법의 정의로 나와 있지만 설득의 네 가지 중요한 속성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설득 화법 일반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설득이 기호로 상호 작용을 하는 말하기 듣기의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것, 둘째는 사전에 의도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 셋째는 신념이나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넷째는 청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설득적 화법이란, 말하는 이가 말을 사용하여 듣는 이의 반응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說)’이란 논증법이나 이성애 감성을 결부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1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주)대한교과서, 2001, 134쪽.

여기에서는 대중연설의 설득적 화법의 정의로 나와 있지만 이는 설득 화법 일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문에 제시된 연설, 강연, 설교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대화나 공식 대화인 면담·면접, 그리고 집단 화법의 토의와 토론 등에서도 그 목적이 듣는 이를 설득하는 데 있다면 설득 화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를 음성이나 문자 등의 매체를 통하여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¹⁶⁾

설득 연설은 연사가 어떤 사리(事理)를 청중에게 이해시켜 자신의 의도대로 청중이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연설이다.¹⁷⁾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란 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 또는 행동 등을 변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커뮤니케이터)이, ②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언어나 그림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라는 기호적 자극을, ③ 특정의 매체를 통하여, ④ 특정 대상의 수용자들에게 전달, ⑤ 그 수용자들로부터 의도했던 반응(효과, 즉 태도나 의견 · 행동 등의 변용)을 유발하는 행위 내지는 그러한 행위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설득 화법의 본질을 종합해 본다면, 설득 화법이란 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의 인지적 · 정의적 · 행동적 태도를 변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②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사법으로 잘 짜여진 ‘메시지’라는 기호적 자극을, ③ 음성 매체를 통하여, ④ 특정 대상의 수용자들에게 전달, ⑤ 그 수용자들에게서 의도했던 반응(효과, 즉 신념 · 감정 · 행동 등의 변용)을 유발하는 행위 내지는 그러한 행위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6)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도서출판 박이정, 2000, 388쪽.

17) 이응백 · 이주행,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문학, 1992, 180쪽.

18) 차배근,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13~14쪽.

앞서 살펴본 설득의 정의에 의하면 설득에 있어서의 독립변인은 정보원, 메시지, 수용자, 채널 요인이며 설득의 효과는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정보원의 요인에서 커뮤니케이터의 공신력, 설득 의도, 매력, 유사성 등에 의해 설득력이 달리 나타난다. 둘째, 메시지의 요인에서 이해도, 주장의 수, 메시지 내의 보상, 일면 메시지 대 양면 메시지, 결론 제시, 정보원의 제시 순서, 메시지 제시 순서, 반복 효과 등에 의하여 설득의 효과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수용자의 요인에서 지적 능력, 자존심, 성적(性的) 차이에 의하여 설득 효과가 달라진다. 넷째, 채널의 요인에서 면대면 대 매스 미디어, 채널 속성에 의하여 설득의 효과가 달라진다.¹⁹⁾

이러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설득 화법의 효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의 유발을 좌우하고 있는 독립변인은 역시 메시지와 그에 관련된 요소들이라 하겠다.²⁰⁾ 앞서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설득 화법이란 발화자가 ‘메시지’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청자의 의견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메시지는 정보원과 수용자, 그리고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의 독립변인들이 모두 고려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의 태도 영역 중 어떠한 영역이 변화하느냐가 결정되고 메시지의 설득력 결핍으로 수용자의 태도 변용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메시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지 내용, 메시지 기호, 메시지 처리가 그것이다. 메시지 내용은 발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사상·경험·감정 등과 같은 정신적인 메시지 내용을 말한다. 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화자 또는 정보원의 주장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

19) 이대구, 앞 논문, 22~23쪽.

20) 차배근, 앞의 책, 233쪽.

하기 위한 사실적 정보나 지식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들의 증거자료 내지 보충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내용을 수용자에게 전달 가능하도록 그것들을 언어나 도형·사진 등으로 기호화해 놓은 것이 메시지 기호들이며, 이러한 내용이나 기호들을 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구조나 체계에 따라서 조직·배열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문체들을 사용해서 고안해 놓은 것이 메시지 처리이다.

설득 화법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대상이 되어 온 것이 메시지 처리에 대한 방법이다. 이는 메시지의 고안과정에서 그 내용과 기호들을 취사선택하고 이들을 수식하고 조직·배열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설득 화법에 있어서 기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수용자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설득 화법 교육에서는 메시지 내용을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식하고 조직·배열하여 그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고교 화법의 내용 조직 교육 현황과 문제점

1) 화법 교육 과정의 현황

‘화법’ 교과는 제6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어’ 교과에서 독립되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기에 그 역사가 매우 짧다. 내용 체계에 있어서 본질, 원리, 실제라는 거시적인 시각과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 항목을 보여 주는 미시적인 시각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직 연구하여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제6차의 ‘화법’은 이론과 실체가 분리되어 있어 지도와 평가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법의 이론과 실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체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7차 고등학교 ‘화법’은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이론과 실체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화법의 실제 범주에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본질, 원리, 태도에서 배운 화법의 이론이 실제와 긴밀히 연결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실제적인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를 강조하며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이의 화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7차와 2007 개정에서 모두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체가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화법의 기능과 전략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담화 유형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고의 연구 대상인 화법 내용 조직과 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보도록 한다. 다음의 표는 본질, 원리, 태도, 실제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 체계 표에서 ‘내용 조직’에 관한 교육 내용이 담긴 ‘원리’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²¹⁾

21)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 조직’과 ‘화법의 전략’ 부분만 세부 내용을 삽입하고 다른 하위 범주의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다. 삽입된 세부 내용은 따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화법의 원리	(가) 화법의 언어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내용 선정과 조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안다. ㉡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한다. ②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이해
	(나) 화법의 사회 · 문화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 변인과 언어 ② 언어 예절 ③ 정중 어법
	(다) 화법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효과적인 의사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대화 방식과 의도, 상황 등을 파악한다. ㉡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의사 소통 규칙에 따라 대화에 기여한다. ② 의사 소통상의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소통이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의사 소통상 장애나 갈등을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③ 시청각 보조 자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보조 자료의 중요성, 종류, 사용법을 안다. ㉡ 의미 전달의 효과를 고려하여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표 1> 제7차 교육 과정 ‘화법의 원리’ 내용 체계

화법의 원리는 화법의 본질²²⁾에서 학습한 인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22) ‘화법의 본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주)대한교과서, 2001, 131~135쪽.)

(가) 화법의 정의

- ① 상호 교섭 작용으로서의 화법의 개념을 안다.
- ② 화법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안다.

(나) 화법의 기능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적 지식을 크게 배경과 전략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내용 조직은 언어적 배경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말하기 전략은 따로 설정되었다.

‘화법의 원리’에서는 개념적이고 명제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면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범주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말하기 절차의 각 단계에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뭉뚱그려 제시하기보다는 화법의 본질 범주에서 배운 화법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들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 조직 방법과 말하기 전략 제시는 체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내용 조직과 화법 전략의 세부 내용들을 보더라도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 교육과정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론을 조직할 때에는 말하기의 화제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 조직 방법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학교의 역사’는 시간적 조직 방법을, ‘학교의 캠퍼스’는 공간적 조직 방법을, ‘학교의 발전 요인’은 인과적 조직 방법을, ‘학교의 조직 구조’는 주제별

-
- ① 표현과 이해의 수단으로서의 화법의 기능을 안다.
 - ② 감화적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의 화법의 기능을 안다.
 - ③ 사회 조정과 결합의 수단으로서의 화법의 기능을 안다.

(다) 화법의 유형

- ①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에 따른 화법의 유형을 안다.
- ② 의사 소통의 목적에 따른 화법의 유형을 안다.
- ③ 의사 소통의 상황에 따른 화법의 유형을 안다.

조직 방법을, ‘학교의 문제점’은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내용 조직 방법으로 시간적 조직 방법, 공간적 조직 방법, 인과적 조직 방법, 주제별 조직 방법,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은 설득 화법보다는 설명 화법에 적합하다. 또는 설득 화법의 전체 조직 내에서 설명적인 특성을 갖는 내용의 부분적 조직에 유용하다. 예를 들면, 문제의 원인을 점검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장단점을 제시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유형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²⁴⁾

이처럼 교육과정에서는 부분적인 논리 전개에 필요한 내용 조직 방법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제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 조직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조직 방법 적용 예시는 목적보다는 화제에 따른 적용에 치우쳐 있다. 말하기의 모든 요소나 과정이 궁극적으로 목적 실현에 귀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전형적인 화제와 연결시킨 위의 내용 조직 예시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론-본론-결론의 역할과 그에 따른 내용 조직을 뒤이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내용 조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보편적 틀을 이용하여 알아서 적절하게 조직하라는 이야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해설에서 제시한 내용 조직 방법은 부분적인 내용 조직과 관련된 미시적 조직 유형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 조직 방법

23)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주)대한교과서, 2001, 135쪽.

24) 박재현, 「설득 메시지 조직의 교육적 원형」 『선청어문』 33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467쪽.

들은 또한 이전의 교육 단계에서 다루어진 것들이기도 하다. 이것만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이전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학습했던 내용 조직 방법들을 큰 틀에서 구조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전체 메시지 조직을 위한 거시적인 조직 유형을 설명 화법이나 설득 화법과 같은 특정 담화 유형별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학습을 도와야 하겠다.

화자의 의견을 상대방이 공감하고 나아가 청자의 신념체계나 행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할 내용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용 조직만큼이나 전략도 중요하다. 화법의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말하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수단들 중에 최적의 수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계획이나 방법 등을 가리킨다. 즉 말하기에 필요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점검·평가하는 상위 인지라고 할 수 있다. 화법에서 화자는 각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화법 유형에 따라 어떤 거시 화법 전략²⁵⁾을 구사해야 하는지, 각각의 미시 화법 전략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고 있으면 필요한 화법 전략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화법의 원리는 배경과 전략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화법의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 해결, 시청각 보조 자료 등이다. 실제 대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삼고자 하였다.

말하기의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화법 전략은 그 말하기 목적이 정보전달

25) 거시 화법 전략은 화법 행위 전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 계획을 의미하며, 미시 화법 전략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국지적인 화법 전략을 의미한다.

이나, 설득이나, 오락이나 친교나에 따라 다르다. 상대에게 정보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하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세울 것이며,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그럴 듯하게 여겨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화법 유형에 따른 적절한 전략 선택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요건이다.

화법 전략의 세부 내용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도 다양한 화법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전략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의 대화 방식과 의도, 상황 등을 파악한다.’라는 부분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가 누구냐(상대의 나이나 신분 또는 친소 관계 등)에 따라 적절한 대화 방식을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인간의 의사 소통이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를 떠나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화 방식의 중요성은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및 이해라는 의도 전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발화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사용하는 말 전체를 달리하기도 한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 가까운 친구에게 하는 말, 시장통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때에 하는 말,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에 하는 말,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할 때에 하는 말 등은 다르다. 이처럼 상황 의존성에 의해 지배되는 의사소통 행위는 적절성이 증시된다.²⁶⁾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발화 상황에 따라 말하기 전략이 달리 쓰이고 있음

2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주)대한교과서, 2001, 142쪽.

을 말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화법 전략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화법 유형에 따른 전략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적절성’이라는 단어로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은 화법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앞서 ‘내용 조직’의 학습 내용이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직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었다면, ‘화법 전략’에의 학습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화법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말하기 방식에 따른 적절한 전략 사용을 중요시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전략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화법’ 교과와 내용 조직과 화법 전략에 대한 학습 내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화법 유형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범주에서의 다양한 담화 유형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 습득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론적 지식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화법에 도입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도 화법 유형에 따른 기능과 전략 설정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교육과정 해설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내용 체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기능’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²⁸⁾

2007 개정 교육과정	
기능 ²⁷⁾	(가) 수용과 생산 ① 내용 구성 ② 개인적, 사회적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화제를 수집하고 탐구한다.

	<p>㉠ 의사소통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한다.</p> <p>㉡ <u>담화 유형, 화제 특성, 상황에 알맞게 내용을 조직한다.</u></p> <p>㉢ 배경 지식, 경험, 추론을 바탕으로 담화의 내용을 재구성한다.</p> <p>㉣ <u>화법이 의미의 교섭 과정임을 알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u></p>
	<p>② 언어적 ·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p> <p>③ <u>의사소통 전략</u></p>
	<p>㉦ 의사소통의 목적, 상대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공감하며 듣는다.</p> <p>㉧ 의사소통 참여자의 소통 방식과 의도, 상황 등을 추리하며 듣는다.</p> <p>㉨ 의사소통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평가하며 듣는다.</p> <p>㉩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규칙에 따라 의사소통에 참여한다.</p> <p>㉪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 등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p> <p>㉫ <u>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u></p> <p>㉬ <u>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u></p> <p>㉭ 의사소통의 시공간 및 사회 ·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p>
	<p>④ 매체 활용</p>
	<p>(나) 사회적 상호 작용</p> <p>① 참여자 인식</p> <p>②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p> <p>③ 주도와 협력</p> <p>④ 말하기 불안 해소</p>
	<p>(다)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p> <p>① 수용과 생산의 점검과 조정</p> <p>② 사회적 상호 작용의 점검과 조정</p>

<표 2> 2007 개정 교육 과정 ‘화법의 기능’ 내용 체계

- 2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실제로 범주화하였지만,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기능, 담화 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본질’은 ‘지식’에, ‘원리’는 ‘기능’에, ‘실제’는 ‘담화 유형’에 각각 대응된다.
- 28)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 조직과 화법 전략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 구성’, ‘의사소통 전략’ 부분만 세부 내용을 삽입하고 다른 하위 범주의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다. 삽입된 세부 내용은 따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리’ 부분을 배경과 전략이라는 하위 범주로 나누었던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수용과 생산’, ‘사회적 상호 작용’,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이라는 하위 범주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상위 인지적 사고 작용을 중시하는 개정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화법 전략’이 상위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말하기 준비나 듣기, 의사소통 상황 전 반과 관련하여 한데 묶여 제시하였던 의사소통 전략들이 그 성격에 따라 일부는 ‘수용과 생산’에서, 일부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다루도록 분리되었다. 제7차에서 ‘화법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 다루었던 ‘말하기 불안 해소’를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하위 범주로 따로 분리하고, ‘수용과 생산’의 범주에서 화법 전략을 다루고 있어, 말하기를 위한 전략 학습 내용이 따로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의사소통 전략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들을 보면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에서 효과적인 전략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직 해설서가 나오지 않아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더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상대의 대화 방식과 의도, 상황 등을 파악한다.’는 말하기 전략을 제시하였던 제7차에서도 ‘적절성’이란 모호한 단어로 학습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제7차보다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이라는 표현으로 세부 내용을 제시한 2007 개정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용 조직에서는 ‘대화 유형, 화제 특성, 상황’에 따른 내용 조직 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알맞게’라는 모호한 표현이 해설서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풀이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한편, 내용 조직에 관한 부분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학습 내용이 제시되었다. 위의 표에 밑줄 친 ㉮의 내용이 그것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특히 고려한 2007 개정에서는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과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가지는 언어적 배경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문화적 전통의 활용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을 말해준다.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은 ㉮에서 말한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화법 교과서 분석 및 문제점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토대로 그 학습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큰 틀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범주를 따르고 있지만 각 교과서마다 그 세부적인 학습 내용과 활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총 4종²⁹⁾의 현행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내용 조직에 대한 학습 내용과 활동이 실제 담화 유형 적용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리’에 해당하는 단원과 ‘실제’에 해당하는 단원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금성출판사, 세기문화사, (주)지학사, 형설출판사 등 3종의 교과서의 목차는 전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크게 화법의 이론과 실제로 나누었는데, 이론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를, 실제에서는 대화, 토의, 면담과 면접, 연설, 토론 등 실제 담화 유형을

29) 다음은 총 4종의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이다.
 이주행 외, 『고등학교 화법』, (주)금성출판사, 2005.
 이중구,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 2007.
 차배근, 『고등학교 화법』, (주)지학사, 2006.
 김광해 외, 『고등학교 화법』, 형설출판사, 2005.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주)지학사에서든 본질, 원리, 태도, 실제 등의 내용 체계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을 다소 변형시켰다. 실제에서 다루는 담화 유형을 크게 대화적 화법, 대중적 화법, 집단적 화법으로 분류하여 ‘대화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대중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집단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등과 같이 원리와 함께 다루었다. 태도 영역은 ‘원리와 실제’ 단원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도 영역은 따로 범주화 하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비슷하다. 다른 3종의 교과서들과 달리 지학사의 목차에서는 이론과 실재가 긴밀히 연결된 교육 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주)지학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조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지학사의 교육 내용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학사의 목차를 보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한 단원 구성으로 담화 유형에 따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대중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단원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화법 유형의 특성과 실제만을 다루었을 뿐 단원명과는 달리 ‘원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즉, ‘대화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집단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단원의 학습 내용은 다른 교과서의 ‘화법의 실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단원명과는 달리 실제 담화 유형에 따른 화법 원리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중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단원에서만 보이는 화법 원리에 대한 학습 내용이 그 단원의 화법 유형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중적 화법의 원리와 실제’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조직 방법도 대중적 화법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기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

용 조직 방법은 시간적 조직 방법, 공간적 조직 방법, 인과적 조직방법, 주제별 조직 방법,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 등인데, (주)지학사에서는 단지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도 보충 자료 한 쪽에 걸쳐 두 세줄 정도로 짧게 이루어져 있다. (주)금성출판사, 형설출판사도 이와 비슷한 제시 방식을 보인다.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담화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는 모습은 세기문화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기문화사의 목차 구성은 (주)금성출판사, 형설출판사와 같이 이론과 실재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담화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다음은 세기문화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조직 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p>1. 목적에 따라</p> <p>① 설명 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순서 • 공간적 순서 • 논리적 순서 • 우연한 순서 <p>② 설득 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방법 	<p>2. 대상에 따라</p> <p>① 공통점, 차이점 밝히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 대조 방법 <p>② 역사적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방법 • 인과적 방법 <p>③ 장소에 따라 전개되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방법 <p>④ 해결 과정을 밝히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역적 구성 • 귀납적 구성 	<p>3. 유형에 따라</p> <p>① 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틀 없음 <p>②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전개-마무리
--	---	---

<표 3>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에 제시된 내용 조직 방법

담화를 목적 · 대상 ·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내용 조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내용 조직 방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제시하여 실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식의 파지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분류 범주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여기에서 분류 기준으로 삼은 ‘유형’이라는 용어는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화법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분류 기준인 ‘목적’, ‘대상’ 보다 큰 상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형’에 따라 분류한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은 담화 전체 조직과 관련되거나 일반적인 것들이 제시되고,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분류한 화법의 조직 방법들은 부분 조직 내에서 유용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분류 기준으로 삼은 범주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전체 조직 방법과 부분 조직 방법이 위계적 체계 없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형에 따른 화법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연설만 제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화법의 실제’ 영역의 학습 내용에는 대화와 연설 이외에도 토의, 토론, 면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화법의 실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화법 유형에 적합한 내용 조직 방법들을 모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기문화사에서는 다른 화법 교과서와는 달리 화법 유형에 따라 적합한 내용 조직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법 유형 분류를 위한 범주 설정이 부적절하고 유형 제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비효과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3종의 화법 교과서에서와 같이 설명식 제시 위주이며 그 설명마저도 간단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해당 내용 조직 방법을 사용한 짧은 글을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

이상으로 화법 교과서 ‘원리’ 단원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조직 방법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지만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의 과지와 전이를 돕기 위해 그것을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화법 교과서에서는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실제에의 적용에 용이하도록 구조화되지 못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

습 내용이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배운 이론을 ‘실제’ 영역에서 담화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론 학습에서는 실제 담화 유형과는 별개로 화법의 기능과 전략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구조화되지 못한 지식은 금방 사라지며 실제에의 적용이나 응용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화법의 기능과 전략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실제 담화 유형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화법의 실제’에서 토론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법 교과서에서 토론은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형식을 분류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 따로 범주화하여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주)지학사 뿐이며, 나머지 3종의 화법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인 토론의 절차 및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 정도이다. 그러나 (주)지학사에서든 명제나 주장에 대한 논증법으로서 연역법, 귀납법, 유추법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개요 작성 시에 상대방의 논박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론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정도의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이나 반론에 대한 반박 제시를 위해 설득력 있게 논거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 없이 이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나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설명식의 방법 제시는 구조화된 지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특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전개라는 추상적인 영역을 다루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되도록 많이 제시하여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학사뿐 아니라 세기문화사와 형설출판사도 토론의 예시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주)금성출판사는 토론의 준비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따로 범주화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라는 소단원을 설명식 이론 학습 뒤에 두어 토론 유형별로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시와 함께 활동 문제를 제시하여, 토론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고 있는지,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여기서의 사례들은 실제 토론에 앞서 토론의 내용 조직 구성에 대한 지식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 학습 뒤에 실제 토론을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보더라도³⁰⁾ 반대 신문식 토론과 직파식 토론 예시의 수행 과제는 제시된 토론의 내용에 대한 분석·평가이지만, 고전적 토론 예시는 그 토론 유형에 맞는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토론 수행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이론, 즉 주장의 조직 표현 방법을 포함한 설득 화법의 방법적 지식의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예시는 없는 셈이다. 대신 (주)금성출판사가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은 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한 토론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듣기와

30)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의 각각의 예시를 통한 수행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토론의 형식	수행 과제
고전적 토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제로 고전적 토론을 해 보자. (1)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보자. (2) 상대 주장의 적절성과 그에 대한 반박을 생각하여 보자.
직파식 토론	위에 제시된 직파식 토론의 예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을 정리한 후, 이 주장들이 어떻게 반박되었는지 살펴보자.
반대신문식 토론	위의 반대 신문식 토론을 평가해 보자. (1)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거를 정리한 후, 다양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보자. (2) 주장을 효과적으로 조직 표현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한 쪽은 어느 측이었는지 생각하여 보자. (3) 상대측의 주장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보자.

말하기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발화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조직 방법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료 보다는 인쇄자료가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 토론의 예시가 부족하다는 것은 토론의 준비를 위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예시를 제시함에 있어서 구태여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등의 모든 형식의 설득 연설을 예시로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실용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실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론의 준비를 위한 모범 예시는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전개 구조와 전략을 갖춘 것이면 충분하다. 토론 교육의 목적은 고전적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등의 토론 형식을 익히게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그 사고의 흐름과 구조화 방식을 학습자 스스로가 깨닫고 모방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설득 화법에서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지식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모델 제시의 편향성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 형성의 우려이다. 모델로 제시되는 예시는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므로 학습자는 그 예시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와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것과 동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전 산문에서도 토론의 준비를 위한 훌륭한 예시를 찾아낼 수 있다. 상대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며 논쟁을 전개해 나가는 명문장이 우리의 고전 산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는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의 모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모범 예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고전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으로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과 (주)금성출판사, 세기문화사, (주)지학사, 형설출판사 등의 4종의 화법 교과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보았다. 이론과 실제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학습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원리 학습은 설명식·나열식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였다. 실제 담화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과 전략에 대한 학습 내용이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실재를 위한 방법적 지식을 익히는 원리 학습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실제 영역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범 예시와 예시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찾을 수 있었다. 원리 학습에서는 분류화·위계화 되지 못한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에서도 실용성 위주로 형식 익히기나 수행에만 치우쳐 있다.

이는 실제 담화 유형에 대한 학습 내용을 그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학습 내용을 일정한 체계 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제의 긴밀성을 추구하는 것과 실용성 위주는 등호 관계가 아니다. 실용성 위주의 교육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들을 학습하게 한다. 제한된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산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구조화시켜야 하며 그 위계적인 구조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보다 상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 교육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이 우선이다. 시간적·공간적 방법, 인과적 방법, 문제 해결식 방법 등의 내용 조직 방법들은 논리적 사고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 전개 방식이 그 특징에 따라 명명된 이름에 불과하다. 이들은 고정 불변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다. 시간적 방법의 전개 방식 안에 공간적 방법의 전개 방식이 들어 갈 수 있으며 이들의 전개 방식이 큰 틀의 인과적 방법 안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사고 과정을 언어로 옮겨 놓은 글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가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유연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처럼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관찰을 위한 다양한 예시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다. 예시 자료는 되도록 많을수록 좋으며, 현행 교과서에서 보이는 동시대의 것, 서양의 것에 보충하여 우리 고전의 것도 함께 다루어지는 다양성도 필요하겠다.

Ⅲ. 상소문의 화법 교육적 가치

동양 사회에서 말이 효과를 가지려면 말하는 사람이 전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했고, 또 말이나 글이 의식이나 의례에 맞게 표현되어야 했다. 상소는 조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글이었을 것이다. 상소는 모범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기에 설득력도 높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³¹⁾ 그렇다면 상소의 형식과 내용을 살피는 것은 모범적인 설득양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다. 더욱이 나랏일에 대한 상소는 정책에 대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주장이 옳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의견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토론의 말하기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과 부합한다.

이 장에서는 상소문의 이러한 특성을 기존의 연구 자료를 통해 정리해 봄으로써 토론 교육의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상소문이 가질 수 있는 설득 화법 교육적 가치와 토론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상소문의 표현 특성

상소문은 왕조 사회 때 쓰이던 관각문학(館閣文學)의 하나로, 왕조 사회가 끝나면서 사라진 한문학의 한 문체이다. 상소문은 신하가 글을 올려 군주를 설득하고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당시 현실상과 작자의 사상이나 왕정(王政)에 대한 주장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³²⁾ 신하가 임금에

31) 이규완, 「상소에 인용된 고사의 설득 용도에 관한 연구: 태조~명종실록의 상소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004, 302쪽.

게 제안·비판·건의·논쟁·의논 등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글로서 정치 행위로서의 언술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판적 언론 통로로서의 상소문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충고의 발화 행위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비록 제도적으로 공인된 비판 행위이긴 하지만 왕을 비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언술행위가 아니라, 왕과 신하라는 권력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상소문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문장력을 총동원하여 당대의 정교하고도 뛰어난 설득 전략을 갖추어야 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토론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식적인 토론에 부합한다.

상소문은 분명하고 진실하며 독실하고 정성을 근본으로 한 논리적인 글이다. 신하가 임금 앞에 올리는 글에 잘못이 있을 수는 없다. 사실을 분석하고 통찰하여 강직한 충성심으로 뜻을 세워야 책임을 완성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잘못을 비평하고 넓은 식견으로 비교하고 선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옛 신하들의 관례와 격식을 전범으로 삼아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며 번잡한 사건도 조리 있게 진술하여 문제의 핵심을 잡아서 풀어내는 장치가 바로 상소문의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상소문은 문장을 장중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대구(對句)가 많은 사육문(四六文)이 쓰이고, 역대 명신(名臣)의 글을 모범으로 삼았다.³⁴⁾

상소문은 문예미를 인정받으며 문장에 대한 품격용어로서 그 품격이 논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소문에 대한 비평글을 통해 상소문의 표현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상소문에 대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32) 성당제, 앞 논문, 225쪽.

33) 최인자, 앞 논문, 107~108쪽.

34) 신두환, 앞 논문, 240~241쪽.

되는 표현 양식이 바로 당대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모범적인 상소문의 표현 양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소문을 잘 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표현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⁵⁾

상소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웅대한 뜻의 설계와 경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상소문은 현실에 적용되는 하나의 논문이며 같고 님은 인생의 총체이다. 상소문을 잘 짓기 위해서는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도 글의 이치를 탐구하여 상소문에 인용할 문구들을 찾아야 하고, 사물의 이치를 논하면서 옛 전적을 살피고 그 행적을 분석하여야 한다. 자신의 경륜과 비교하여 문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역사나 지식의 축적을 통한 문장 강화를 꾸준히 해야 한다.

문장은 주제에 따른 규범적인 문체의 전범을 찾고 유교 경전을 본받아 그 뜻이 문장에서 배어나도록 한다. 실속 없는 미사여구는 피해야 하고,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의기가 높고 문체에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굳은 의지와 세차고 강한 기세를 가지면서도 유려한 문장력이 있어야 한다. 세차고 굳센 문체 속에서 우의성과 함께 인용과 비유, 그리고 대구의 묘를 살려 전아한 품격을 가진다.

또한 내용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논의가 명확해야 되고 예증이 적합하여야 주장하는 바가 명쾌해진다. 이 때, 사례의 지적은 솔직해야 한다. 사례의 지적이 솔직하다는 것은 문제 시각이 뛰어나다는 말도 된다.

35) _____, 앞 논문, 246~257쪽.

신두환은 위의 논문에서 궤애 김수온(乖崖 金守溫)이 놀재(訥齋)가 편찬한 「남원군주의서문(南原君奏議序文)」에 언급한 글, 궤애가 「남원군가집서(南原君家集序)」에서 놀재 상소문에 대해 언급한 글, 이공익이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시대 성임(成任)을 평한 글, 정조와 서거정(徐居正), 이복원(李福源) 등이 『놀재집』에서 놀재의 상소문을 평한 글, 유협(劉鋹)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상소문에 대해 언급한 부분 등을 제시하며 상소문의 문예미에 대해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종합·정리하여 상소문의 표현 특징으로 밝히고자 한다.

문장의 구성과 사례의 지적이 현실적이고 솔직하면 문장의 논지가 명확해지고 논지가 명확해지면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져서 문체가 간결해질 수밖에 없다. 문체가 간결해지면 쓸데없는 수식이 없고 문장의 연결이 탄탄해진다.

상소문을 잘 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이러한 요건들은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문제의 핵심을 따지고 분석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제 의견 쪽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론에서 토론자가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글의 인용, 핵심을 찌르면서도 간결한 내용 구성, 적합한 사례의 논거, 상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우의와 비유, 대구법의 활용 등은 논자의 글에 설득력을 높여 준다. 또한 상소문은 그 글의 표현에 앞서 사회 문제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 모색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토론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2. 상소문의 화법 교육적 활용 가능성

1) 설득 화법 교육적 가능성

설득 화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대상, 상황에 맞는 메시지 조직이다. 목적, 대상,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논증적 사고와 그 사고에 따른 논증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설득 화법 교육에 있어서 실제적 활동의 형식적 방법을 바로 가르치거나³⁶⁾ 단순히 그 논증적 절차를 도식적으로 제시하여 가르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서로

다른 목적, 대상, 상황에 따른 논증 방식을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이해하고 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단순히 앎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여 창의적으로 상황에 맞는 설득 화법을 창안해 낼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소문 자료는 설득 화법 교육으로서의 효용성을 갖는다.

우선 상소문에서 그 시대의 설득 표현에는 어떤 절차가 쓰이고 있는가, 논쟁 과정의 양식화에 기여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며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방안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 그 체계의 정체를 정립해 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러하도록 만든 어떤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어떤 일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사색하게 한다. 생각의 틀과 그것을 언어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삶의 조건들과 관계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절차들의 양식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양식성은 어떤 조건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하는 설문이 그것이다.

이처럼 언어사용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앞에 놓고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규칙과 원리를 체계화하고 그리하여 법칙과 이론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사고 과정은 지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일차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 표현의 체계화는 체계로서의 의미를 확보할 뿐 아니라 단순한 도구

36)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도구적(instrumental) 지식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은 그 함정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도구적 지식이라 함은 본질적(intrinsic) 지식의 상대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활용되는 지식을 뜻하는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그 지식이 별다른 여과 없이도 직접 활용되는 것까지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국어교육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용문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력서 쓰기를 가르친다든지, 신문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활자의 홑수와 모양이 국어교육의 어느 국면에 포함되었던 것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실용성으로만 달려가버리는 것은 어떤 관점의 천박한 궁극주의의 소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천박성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지식이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더 기울어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타율적인 인원을 교육하는 데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앎에 대한 욕구를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장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흐려 놓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48~249쪽.

의 습득이 아닌 표현의 현상이라는 지식이 되며, 그것은 지나간 시대가 남긴 언어의 화석이 아니라 창안을 위한 지적 지식이 된다.

논변은 한자문화권에서 제반 논증 장르들을 아우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적인 논증 장르의 한 줄기를 계통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다. 어떤 논증 장르를 계통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논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소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논증 행위의 관습성을 밝혀내고 그러한 관습성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설득 교육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상소문은 국어 문화 교육의 소재로, 또한 논증 장르 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³⁸⁾ 이로써 상소문을 통한 교육은 논증 장르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산문과 같은 문어 텍스트를 통한 구어적 표현 교육의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하나의 ‘표현’ 영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상소문에서 논증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 표현 방식만을 찾는 의미가 아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논자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은 표현주체자의 인식방법과 관련되며 이는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문자에 의해 또는 음성에 의해 실체화된다. 전자는 쓰기, 후자는 말하기가 된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언어행위의 전 단계의 과정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심리적인 메카니즘이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표현된 언어 진술을 분석적·비판적으로 이해하

37) 논변은 전통적인 논증 장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은 아니었으나 논변이라는 용어의 대중성과 이 용어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 포괄성으로 하여 제반 논증 장르들을 아우르는 장르류의 명칭으로 살려 쓰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엄훈, 앞의 책, 17쪽.

38) 엄훈, 앞의 책, 18쪽.

는 과정을 통해 표현주체자의 사고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쓰거나 말하기 등의 일반적인 표현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소문은 대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대의 한문 장르는 텍스트보다는 맥락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즉 문어 텍스트의 규칙성보다는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가’, ‘소통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맥락이 장르 구분의 준거가 되었던 것이다. 고대의 소통 장르는 기원적으로 구어 장르였으며 문어가 중시된 후대에도 오랫동안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가 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한자 문화권의 논증 및 설득 장르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담화였으며 실용적인 동기를 지닌 사회적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논설류 산문을 문어 텍스트를 통한 대화적 소통으로 보고, 독화적 대화(獨話的 對話)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문어 텍스트 속의 논증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나 각 단계마다 청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전개된다. 즉 문어 텍스트의 논설은 표층적으로는 독화이나 심층적으로는 대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³⁹⁾ 또한 설득 화법은 다른 어떤 화행보다도 발화자와 발화상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문맥이 예민하게 작용하는데, 상소문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상소문이 이와 같은 대화적 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어적 소통이 아니므로 발화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증적 대화는 논제를 중심으로 통합되므로 상소문을 통해 특정한 논제를 둘러싼 대화의 연쇄 현상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상소문의 대화 전개 양상은 설득적 화법의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39) 엄훈, 앞의 책, 61쪽.

2) 토론 교육적 가능성

조선 시대의 정책 결정은 국왕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중대 사안의 경우 재신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공식적인 공간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논증 행위를 공론 논변이라고 한다. 공론 논변은 대립되는 견해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가장 공변되고 의로운 의론(議論)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지향하는 문제 해결 지향적인 논증 행위의 통합체였다.⁴⁰⁾ 이러한 공론 논변에 사용된 매체 중 하나가 상소문이다. 상소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정책 시행 등의 정사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올리는 글을 말한다. 상소문은 주로 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특정한 문제 해결 노선을 지지하는 논증을 펼친다. 그리고 이 모든 전개 절차는 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적 판정자로서의 임금의 역할은 특정한 담화 공동체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보편적 청중 관념에 비견된다. 상소문은 판정자인 임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므로 판정자 지향적인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판정자인 임금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한 논제가 참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상소문의 이와 같은 성격은 토론의 과정과도 같다.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특히 공적 토론에 해당한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긍정 측(찬성 측)과 부정 측(반대 측)이 각기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과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자기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또한 집단이나 개인 간에 서로 충돌하는 의견과 입장을 논제로 하여 유용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을 설득시킬 때 자

40) 엄훈, 앞의 책, 93~94쪽.

기편 의견은 옳고, 상대편 의견은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사용한다. 즉, 토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은 평소 급우간이나 선배, 선생님들과 대립되는 의견들을 이야기 할 때 이루어지기도 하며, 교실이나 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자는 개인 간의 사적 토론(비공식적인 토론), 후자는 집단 간의 공적 토론(공식적인 토론)이다.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토론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친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의 제약이 적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집단 간 공적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적 특성⁴¹⁾을 가지며 언어 표현에 제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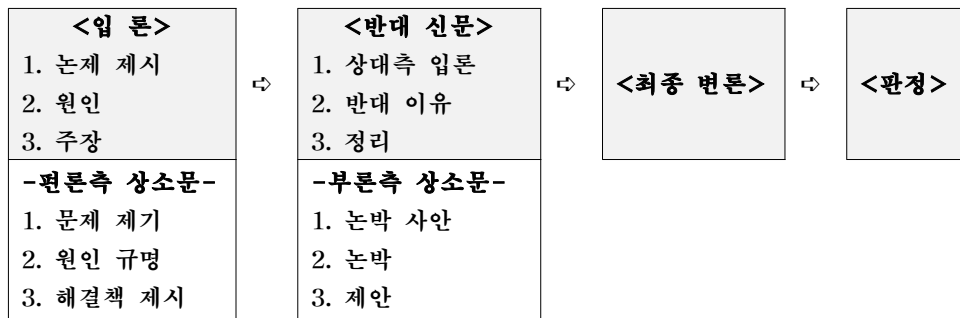
- 종결어미가 주로 ‘(으)ㅂ니다/습니다’로 나타난다.
- 조사를 잘 생략하지 않는다.
- 비격식적인 어휘보다 격식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한다.
- 구어체 표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운 축소나 변동의 사용을 지양한다.
- 어순을 지켜서 표현한다.

공식적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주로 문자언어 표현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공식성과 형식성을 띤 담화 상황에 맞게 격식과 예의를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언어 표현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말하기와는 달리 발화 전에 미

41) 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적 특성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였다.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주)사회평론, 2009, 162~163쪽.

리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말할 사람은 전달할 내용을 원고로 작성하여 사전에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고는 자신의 의견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논리적 취약점을 주장하며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상대로 논증을 전개하는 상소문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이 상소문과 공적 토론이 가지는 유사성은 공적 토론의 준비를 돕는 교육에서 상소문 자료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토론은 일반적으로 ‘입론→반대 신문→최종 변론→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입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증 전개가 이루어지며,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논박하는 논증 전개가 이루어진다. 입론과 반대 신문의 이와 같은 논증 전개는 각각 편론(便論)측 상소문과 부론(否論)측 상소문의 논증 전개에 부합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입되는 상소문의 논증 구조

따라서 하나의 논제에 대한 편론 측 상소문과 부론 측 상소문의 논증 전개 양상과 논증 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적 토론에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V. 상소문을 활용한 화법 교육의 실제

앞서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교육 측면에서 보았던 상소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상소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정에서 벌어지는 당파의 논쟁이 이것을 매개로 행해지므로 임금을 집행자로 둔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문어적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소문의 논증 구조 분석을 통해 나온 논증 과정과 논거의 유형들은 공적 토론에 필요한 내용 조직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소문을 통해 내용 조직 방법과 화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설득 담화의 모든 내용 조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용 예시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이어 김반과 변계량 상소문에서 분석한 내용 조직 방법을 가지고 토론의 준비 단계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론의 일반적인 단계는 ‘입론 → 반대 신문 → 최종 변론 →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입론과 반대 신문 단계의 준비를 위한 개요 작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내용 조직 원리를 편론 측 김반과 부론 측 변계량의 상소문에서 각각 찾아 볼 것이다. 그리고 입론과 반대 신문 개요 작성에 필요한 학습 요소들과 김반과 변계량 상소문의 논증 구조의 관련성을 밝혀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토론 교육을 위한 상소문 내용 조직 분석

1) 강경-제술 논쟁의 전개

여기서 다루어질 강경(講經)-제술(製述) 논쟁은 과거 시험에서 문과의 초

장을 강경으로 할 것인가 제술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군주와 문신, 문신과 문신들 사이에서 있었던 의견의 교환(과정)을 말한다. 강경은 경서에 대한 구두(口頭)와 훈석(訓釋)을 기본으로 한 암기식 구술시험이고, 제술은 경서 의의(經書疑義)⁴²⁾를 비롯하여 논(論)·표문(表文)⁴³⁾·대책(對策)⁴⁴⁾으로 정치적 사안을 분석하고 견해를 작성하거나 시문을 창작하는 필기시험이다. 경서를 대상으로 하고 경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경과 제술은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 입안자라 할 관료와 수험생인 유생들에게 과거 합격을 위한 이 두 영역의 학습방식은 상당히 다르게 인식되었다.

강경-제술에 관한 논의는 역사가 오래지만 세종대에 더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세종대에 이루어진 강경-제술 논쟁의 자료를 가지고 논쟁 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양측이 내세우는 논거의 유형과 전략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도출해낸 논쟁 전개 방식과 전략에 관한 지식들은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학습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는 유교적 이상주의의 비전에 근거하여 예악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문물제도의 완비를 추구하며 정전(正典)을 형성해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

42) 경서의 구절을 해석하고 일정한 논리를 세우는 시험 형식의 하나.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따르면 시험 과목 가운데 疑와 義가 있는데, 疑는 '사서의(四書疑)'로 사서(四書) 중에서 출제하였으며, 義는 '오경의(五經義)'로 오경(五經) 중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나 의제(疑題)와 의제(義題) 두 가지는 혼용되어, 의의(疑義)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

43) 중국의 문체로 신하가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여 황제에게 고하는 상주문(上奏文). 고대에는 군주에게 헌언(獻言)하는 것은 모두 상서(上書)라고 하였으나 한 대(漢代)에 와서는 章·表·奏·議로 분류하였다. 표는 전적으로 진정(陳情)에 관한 것만을 가리켰으나 후세에는 용도가 넓어져, 논간(論諫)·추천(推薦)·경하(慶賀)·위안(慰安)·진사(陳謝)·탄핵(彈劾) 등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형식을 중시하는 문체이지만 삼국 촉(蜀)나라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 진(晉)나라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 등은 탁월한 내용으로 유명하다.

44) 조선시대 과거 과목의 하나. 어떤 시정문제(時政問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문제를 써놓은 글이 책(策)이다. 한편 임금이나 귀한 사람의 물음에 대답하는 책문(策文)을 말하기도 한다.

황에서 과거제도를 강경으로 할 것인가 제술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였다. 과거를 통해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성학(聖學)을 탐구하여 유교적 이상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는 당대 조선이 대외적으로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세종은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문과 초장의 과목 문제를 변계량·맹사성·허조·허지와 논의하였다. 변계량은 1417년 정유과법 이후 시행되고 있던 강경제도로 인하여 암기 위주의 학습방식이 주가 되고, 이에 따라 천박한 학문 풍토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대사헌 허지는 강경이 조종의 성헌(成憲)이라며 정유과법을 제정한 상왕 태종의 존재를 일깨우는 등 강경론자들의 입론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강경-제술 논쟁이 전개될수록 조정성헌이라는 논리만으로는 강경의 타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문과 초장에서 제술로 시험을 보인다는 결론이 내려진 뒤에도 강경론자들은 제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그 해결책을 촉구하였다.⁴⁵⁾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강경론자의 상소와 제술론자의 상소는 시기적으로는 직접적인 논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심지어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강경론자의 상소는 이후에 그에 대한 논박으로 분석될 제술론자의 상소보다 뒤늦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강경론과 제술론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대신들의 인식 논리의 기초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장과 논박의 논쟁 과정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는 김반의 상소와 변계량의 상소를 논쟁 과정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45) 김남이, 「세종대 과거제도에 관한 논쟁과 유교문화 국가의 이상」 『민족문화사연구』 권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131~136쪽.

집을 엄금하는 것은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말단만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세종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글이다.

【작품 1】

우리 조정에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척(宗戚)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국학(國學)이 있어서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교양(教養)하여 사람을 만드는 도가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재(齋)에 있으면 책은 덮어 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투히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목(科目)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하필 고심하고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한 뒤에라야 과거에 합격할 것인가.’하면서 모두 글을 읽으려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고를 청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갓 오고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에 글 읽기에 전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장차 반드시 무무(貿貿)하여 진유(眞儒)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초집을 금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오나, 의의초집(疑義抄集)이 아직도 그 마음의 누(累)가 된 것입니다. 그웁이 생각하옵건대, 성조에서 강경을 파하고 의의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그웁이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

는 다른 논증 구조 단위와 사슬처럼 연결되어 ‘논증 구조 연쇄’가 형성된다.

47) 강경론자와 제술론자의 주장에 있어서 어느 것이 편론이다 부론이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본고에서 논변 과정 분석을 함에 있어 강경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제술론자의 논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강경론자의 주장은 편론으로, 제술론자의 주장은 부론으로 설정하였다.

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도들이 성현의 도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실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에도 누(累)가 있습니다.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과거사의(朱子科擧私議)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실린 태조 과거 성현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중략…)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장차 진유(眞儒)가 배출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거의 합할 것이옵니다.⁴⁸⁾

김반의 논변을 논증 단위로 분석하고 숨겨진 논증 요소를 되살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논자의 목적 : 문과 초장을 다시 강경으로 해야 함을 설득시킨다.

- ① 종학과 국학을 설치하여 각각 종척의 자제들과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어 사람을 만드는 도가 지극하고 극진하다. [근거]
- ②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증]

48) 『세종실록』 15년 2월 9일(계사). 김남이, 앞 논문, 140~141쪽에서 재인용.

생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밑줄 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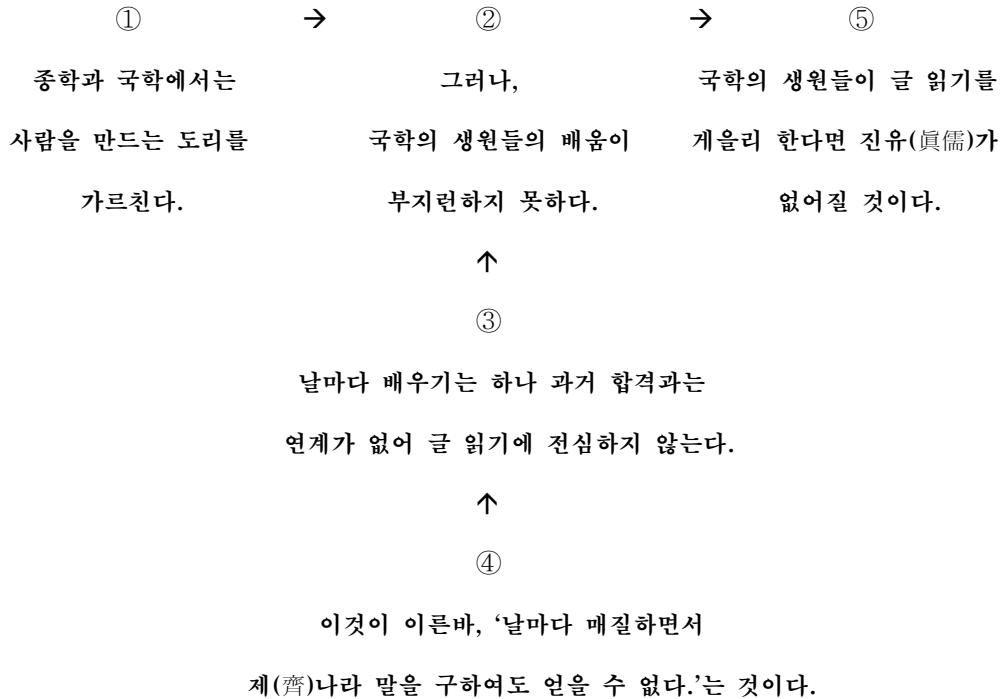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과거사의(朱子科擧私議)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실린 태조 과거 성현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성균관 및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생원과 생도는 예조와 대간(臺諫)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월강(月講)할 때마다 같이 고강(考講)을 가하여, 『대학』을 통(通)한 뒤에야 『논어』·『맹자』를 강하고, 『논어』·『맹자』를 통한 뒤에야 『중용』을 강하며, 오경(五經)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여, 그 통경(通經)한 것이 많고 적음으로 그 등급의 고하(高下)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시년(試年)에 이르러 통고(通考)하여 초장(初場)을 삼고 의의(疑義)는 과해 없애며, 무릇 조사(朝士) 및 외방의 수령과 교도(敎導)들에게는 시년(試年)에 강(講)을 하되, 또한 통경(通經)의 많고 적음으로 초장을 삼을 것입니다. 외방 각도의 생도에게는 특별히 행대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감사·경력·수령들과 더불어 매년 춘추(春秋)에 서울 안에서 강경하는 예에 의하여 함께 고강(考講)을 가하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예조에 보내어 시년(試年)을 기다려서 통고(通考)하여 초장을 삼으며, 그 나머지 외방의 생원 및 전 교도들은 함께 성균관 월강(月講)에 와서 시험한 뒤에 과거에 나가기를 허락하면,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세종실록』 15년 2월 9일(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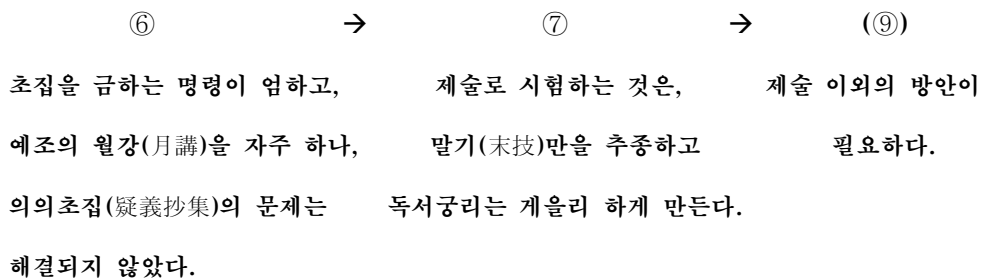
- ③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글 읽기에 전심하려 하지 않는다. [지지]
- ④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지] (③에 대한 지지, 옛사람의 말에 의한 권위 부여)
- ⑤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진유(眞儒)가 없을까 두렵다. [주장=근거]
- ⑥ 이는 초집을 금하는 명령이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나, 의의초집(疑義抄集)이 아직도 마음의 누(累)가 된 것이다. [근거]
- ⑦ 성조에서 강경을 파하고 의의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것은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이는 저술(著述)과 같은 말기(末技)만을 추종하고 독서공리는 등한시하게 만든다. : 암묵적 논거) [보증]
- ⑧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지, 옛사람의 말에 의한 권위 부여]
- ⑨ (의의로써 시험하는 것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 암묵적 주장) [주장=보증]
- ⑩ 여러 생도들이 성현의 도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에도 누(累)가 있다. [근거] (⑤를 구체화하여 명시)
- ⑪ 이전처럼 강경으로써 시험한다면, 성균관에 유생들이 다시 모일 것이고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진유(眞儒)가 배출될 것이다. [주장]

위의 논증 단위들을 논증 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이 논증 구조가 복원된다.

<논증 구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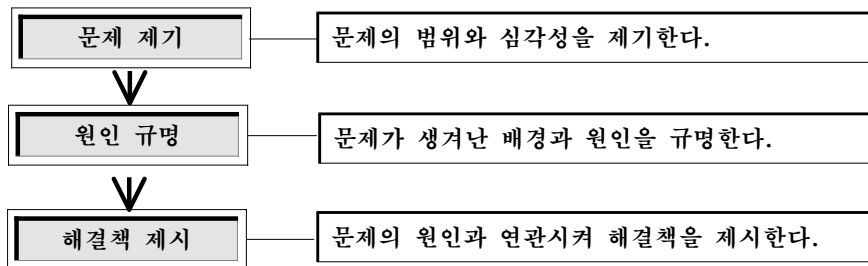


<논증 구조 2>



<논증 구조 1>은 당대의 가치 기반을 건드릴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국학에서 생원들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하면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젊은 지식인과 관료가 길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당대의 가치 기반을 건드린다. 이어 <논증 구조 2>에서는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논증 구조 3>에서는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한 해결책 제시의 논증 과정을 정리하여 이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유형 중 ‘문제-원인-해결 조직 (Problem-cause-solution pattern)’과 유사하며, 부분적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 (Motivated sequence pattern)’과의 접점도 보인다.

문제-원인-해결 조직은 문제-해결 조직을 확장한 것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원인들을 규명한 다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배열 순서를 가진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 방안이 그러한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⁴⁹⁾ 그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⁵⁰⁾



<그림 2> 문제-원인-해결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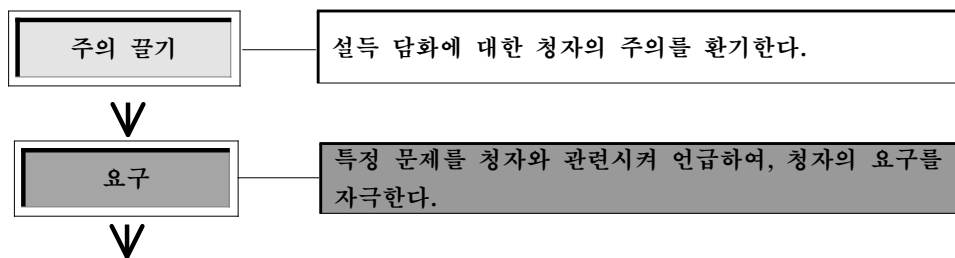
문제-원인-해결 조직에 따르면 <논증 구조 1>은 문제 제기, <논증 구조 2>는 원인 규명, <논증 구조 3>은 해결책 제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반

49) 임영환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208~209쪽.

50) 박재현,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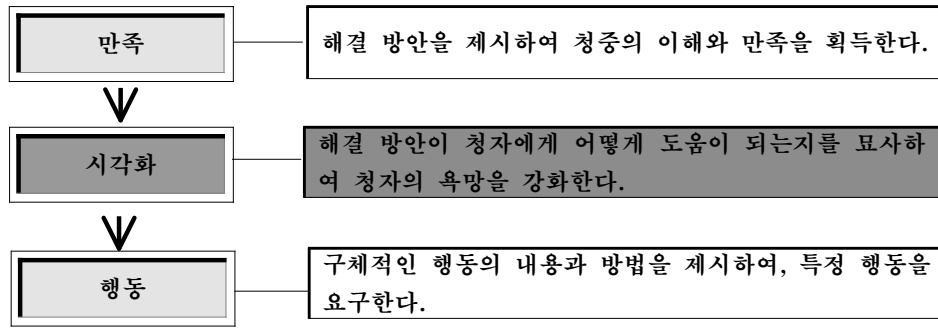
은 당대의 조선이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해나갈 젊은 지식인과 관료를 길러내야 한다는 가치 기반을 근거로 하여 <논증 구조 1>은 국학의 생원들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그 다음 <논증 구조 2>에서는 조정의 원대한 이상과 그것을 실현할 학문과 교육이 부실한 원인이 바로 문과 초장에서 시행하는 제술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때문에 당대의 젊은 선비들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과 ‘독서궁리(讀書窮理)’하는 학문적 과정을 필수 관계로 생각지 않고 있어 학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강경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학습 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때 유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해나갈 젊은 지식인과 관료를 길러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문과 초장의 강경 시행을 해결책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시 부분에서 동기화 단계 조직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볼 수 있다. 동기화 단계 조직은 몬로(Alan Monroe)에 의해 주장된 설득 담화의 조직 유형으로서 청자를 설득하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려 할 경우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인다. 동기화 단계는 인간의 사고과정과 일치하므로 청자로 하여금 요구된 행동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이끌어 간다.⁵¹⁾ 주의 끌기(Attention) - 요구(Need) - 만족(Satisfaction) - 시각화(Visualization) - 행동(Action)의 5단계로 되어 있다.⁵²⁾



51) 임영환 외, 앞의 책, 210~211쪽.

52) 박재현, 앞 논문, 98쪽.



<그림 3> 동기화 단계 조직

김반의 상소문에서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논증 구조 1>과 해결책 제시에 해당하는 <논증 구조 2>에서 각각 동기화 단계의 요구 단계와 시각화 단계의 모습이 보인다. 요구 단계는 청자의 가치관이나 주요 관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청자의 관심을 끌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당대의 조선은 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이념적 기반을 공시해야 했다.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여 유교국가로서의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군신이 분투하던 시기였다. <논증 구조 1>에서는 이러한 당대의 가치기반을 건드려 조정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할 학문과 교육이 부실해진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한편 동기화 단계 조직에서의 시각화 단계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그에 대한 욕망을 강화해 나간다. 즉 화자가 제시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청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여 주는 것이다. 김반의 상소문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증 구조 3>에서도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 시행할 경우 참된 유자를 배출하는 국가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

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장차 진유(眞儒)가 배출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거의 합할 것이옵니다.

이는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가치 기반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당대 중시되었던 가치 기반에 근거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청자인 임금이 중시하고 있는 가치의 성공적인 실현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하면, 김반의 상소문은 문제-원인-해결 조직을 내용 전개와 거시 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동기화 단계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요구 단계와 시각화 단계를 각각 문제 제기 단계와 해결책 제시 단계에서의 미시 구조, 즉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구 단계는 필요성 전략⁵³⁾, 시각화 단계는 효과 구체화 전략⁵⁴⁾으로 다시 명명해 볼 수 있다. 필요성 전략과 효과 구체화 전략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필요성 전략은 현재 무언가 필요한 게 있고 그 필요성을 화자가 주장하는 것이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제시된 대안이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화자의 주장은 납득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효과 구체화 전략은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청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한편, 원인 규명 단계에서도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상소문의 특수한 발화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53) 엄훈(2000)의 연구에서 유향소 복립 논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쟁 전략을 소개하며, ‘필요성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엄훈, 앞 논문, 296쪽.)

54) ‘효과 구체화 전략’은 연구자가 시각화 단계를 전략의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다. 바로 ‘승복(承服)과 반박(反駁)의 변증법’⁵⁵⁾이다. 많은 상소문을 읽어보면 대부분 ‘先공감 後논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먼저, 자신의 충성과 의도의 순수함을 설파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주장에 들어간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 전략의 한 요소로 지적한 에토스(ethos), 즉 설득자의 지성, 선의, 도덕적 성격을 설파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소문의 경우, 단순히 설득자의 인격과 지성을 보증함으로써 자기 견해의 보편타당함을 역설하려는 에토스라기보다는 왕과 선제된 권력 관계를 교묘히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언술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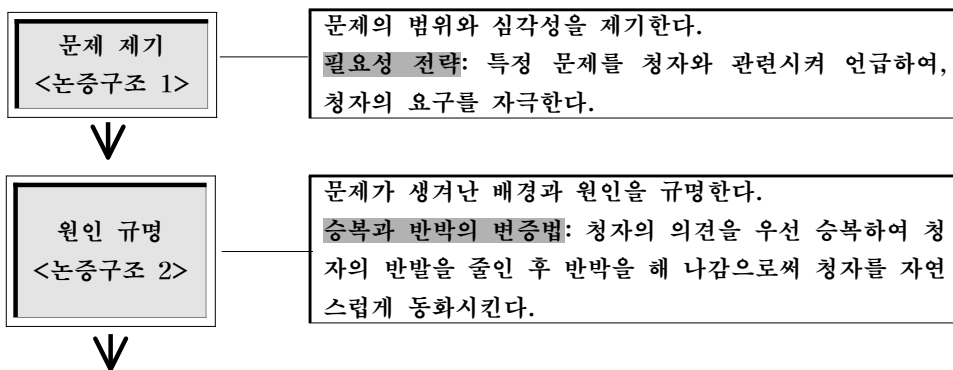
이는 다름이 아니라, 초집을 금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오나, 의의초집(疑義抄集)이 아직도 그 마음의 누(累)가 된 것입니다.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성조에서 강경을 파하고 의의으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그옥이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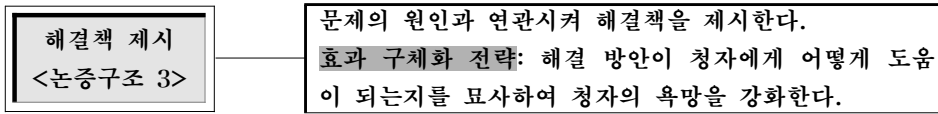
위는 원인 규명 단계에서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을 사용한 예를 밑줄을 그어 표시한 것이다. 김반은 문제 제기 단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학에서의 배움이 게을러지고 진유(眞儒)를 배출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문과 초장의 제술 시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제도의 시행 명령을

55)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은 최인자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최인자, 앞 논문, 110쪽.)

내리는 주체는 임금이기 때문에 감히 임금이 내린 명령을 함부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신하로서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임금의 분노를 사게 되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반은 신하로서의 자신과 유학자로서의 자신을 교묘하게 분화시켜 전자는 승복, 후자는 반박을 해나감으로써 청자인 임금과의 대립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신하의 입장에서 제술로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지금의 제도를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한편으로, 그는 유학자로서의 자신의 개인적인 우려를 조심스럽게 꺼내놓는다. 그리고 유학자의 입장이라는 하지만 개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으므로 『맹자』라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생각이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권위자의 목소리로 반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이라고 한 이유는 먼저 승복함으로써 임금의 반발을 예방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며, 이어 반박을 해나감으로써 인품과 학식을 드러내어 훌륭한 신하로 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원인 규명 단계에서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은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김반의 상소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시 논증 구조와 논쟁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김반의 상소문의 내용 조직과 전략

이상은 편론에 속하는 강경론자의 상소문을 보았다. 다음으로는 부론에 해당하는 제술론자들의 입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강경론자들이 강경과 제술을 접합 지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제술론자들은 강경과 제술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인 관계로 인지하고 있다.

1428년(세종 10) 4월 판부사 변계량(卞季良)은 강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술론을 확고한 과거정식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나선다. 변계량은 10여 가지에 달하는 항목을 통해 강경 시험의 문제점과 제술의 의의를 역설했다. 변계량이 제술을 주장하는 근거에는 학문의 단계에 대한 견해, 강경만이 과연 진정한 유학의 본령인가 하는 질문, 조종의 성현에 대한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변계량은 강경 시험에서 주로 시험하는 기송(記誦)과 훈고(訓詁)는 학문의 초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본다.⁵⁶⁾ 기송과 훈고를 거치면서 경서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술을 배우면서 경서에 담긴 심오한 이론과 도리를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다. 변계량에게 강경과 제술은 초학자가 학습을 시작하여 이를 일정한 학문적 성과로 온축하고, 다시 저술로 풀어내 가는 학문적 일대기를 구성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⁷⁾ 변계량이 강경 시험의 문제점과 제술의 의의를 역설하며 내세웠던 10여 가지의 항목⁵⁸⁾ 중 여섯 번째의 항목 부분을 발췌하여 보도록 하겠다.

56) 그는 “대개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데에는 어려서는 기송과 훈고를 익히고 장성하여서는 제술을 배우고, 늙어서는 저서하는 것이 그 범례(『세종실록』 10년 4월 23일(정해))”라고 했다.

57) 김남이, 앞 논문, 142~143쪽.

58)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0년 4월 23일(을해) 참고.

【작품 2】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과 초장에서 의(疑)와 의(義)를 시험한다면 사람들은 다 저술의 말기만 추종하여 경서의 강송에 힘쓰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강명(講明)하고 저술(著述)하는 것이 비록 각기 장단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어찌 향풀(薰)과 악취 나는 풀(蕪), 얼음과 솟처럼 상반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문신 이색이 말하기를, ‘정몽주는 강명을 잘하고, 이승인은 저술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인의 강명과 몽주의 저술도 또 어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저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서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은 곧 배우는 자로 하여금 오로지 기승과 훈고에 힘쓰게 하여 뜻이 좁고 기운이 졸렬하여져서 마침내는 성리(性理)의 심오한 뜻에 통하지 못하며, 글 짓는 재주도 또한 조잡하고 좀스러워져서 대체로 배우는 자의 큰 병통이 되니 실로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근의 상서에 기재한 것이 어찌 지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여섯째입니다.⁵⁹⁾

논박의 진행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유형을 파악하기 쉽도록 변계량의 상소문을 논증 단위로 분석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자의 목적 : 문과 초장을 다시 강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지 못함을 설득시킨다.

① 강경론자들은 저술로 시험을 보이면 저술(著述)과 말기(末技)만을 추종하고 경서를 강송하는 일은 등한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논박 사안)

59) 『세종실록』 10년 4월 23일(을해). 김남이, 앞의 논문, 143쪽에서 재인용.

(김남이의 논문에서는 세종 10년 4월 23일을 ‘정해’라고 적었으나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을해’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을해’로 수정하였다.)

- ② 강명(講明)하고 저술(著述)하는 것이 비록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하나 어찌 향풀과 악취 나는 풀, 얼음과 솟처럼 상반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는가. (근거)
- ③ 문신 이색이 ‘정몽주는 강명을 잘하고 이송인은 제술을 잘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이 둘의 재능이 어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높지 않다고 하겠는가. (근거)
- ④ 제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서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주장)
- ⑤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은 뜻이 좁고 기운이 졸렬하여져서 마침내는 성리(性理)의 심오한 뜻에 통하지 못하며 글 짓는 재주도 조잡하고 좀스러워져서 실로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근거)
- ⑥ (문과 초장에서 제술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암묵적 주장)

먼저 논박할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계량은 제술에 비판적인 강경론자의 주장부터 제시한다. 강경론자는 제술은 글을 쓰는 말단의 기예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제술에 대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경서를 강송하는 일은 전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며, 강경과 제술을 분절된 영역으로 제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①은 논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곧이어 변계량은 강경과 제술을 분절된 것으로 보는 강경론자의 전제를 논박한다. 즉, 강경과 제술을 분절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유(眞儒)를 배출하여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을 문과 초장의 강경 시행으로 이룰 수 있다는 강경론자의 주장을 논박한 것이다. 변계량은 진유를 배출하여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가치 기반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강경론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반론을 편다. ②와 ③은 옛말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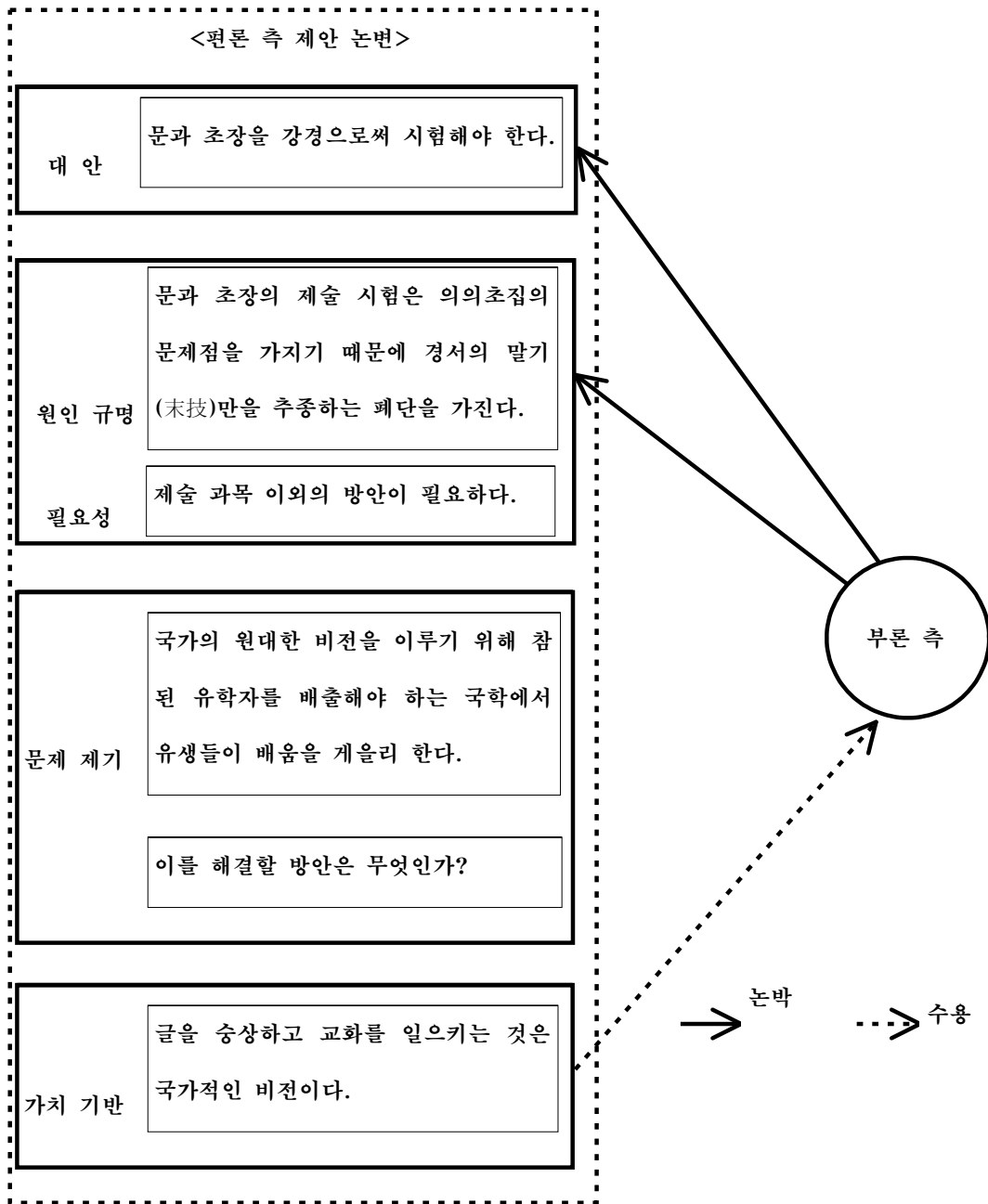
유를 사용하여 강경과 제술이 비록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반되어 들어갈 수 없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고 논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논거로 삼아 ‘제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서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④) 즉, 강경은 이후 제술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⑤부분은 강경론자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논박이다. 강경은 제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과 초장에서까지 여전히 강경으로 시험한다면, 기승과 훈고에만 힘쓰는 폭 좁은 학문을 하면서 ‘뜻이 좁고 기상이 졸렬해져’ 학문을 일으켜 진유를 배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변계량은 강경으로 시험하면, 성리학의 심오한 경지를 이루고, 문재(文才)를 가진 자를 얻을 수 있다는 강경론자의 비전을 부인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문과 초장의 제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⑥)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박은 새로운 제도가 편론측이 예측하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일종의 효과 공격 전략⁶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부론 측의 논박 과정은 ‘쟁점 도출 → 논박 →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논박할 사안을 제시하여 쟁점을 도출하는 부분이며, ②와 ③, ④와 ⑤는 각각 편론 측의 전제와 대안 제시 부분에 대해 논박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⑤에서의 편론 측의 대안 제시 부인은 역설적으로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⑥과 같은 암묵적 제안을 이끌어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편론 측과 부론 측의 토론 논변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편론 측이 제안 논변을 하면 부론 측은 이에 대하여 논박을 함으로써 토론이 전개된다.

60) ‘효과 공격 전략’이라는 용어도 앞서 ‘필요성 전략’처럼 엄훈(2000)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엄훈, 앞 논문, 296쪽.)



<그림 5> 강경-제술 논쟁의 토론 논변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론은 편론 측의 제안에 대하여 부론 측

이 논박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각각 강경론자와 제술론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반의 상소문과 변계량의 상소문만을 보아 각각 한 번씩의 진행만을 보고 있지만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논박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토론 진행 과정의 전범으로 삼을 수 있겠다.

3) 논거의 유형과 표현 방식

편론 측과 부론 측에서 사용하는 논거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논거뿐 아니라 당대의 합리성을 기초로 한 논거의 유형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김반의 상소문과 변계량의 상소문에서 보이는 논거의 유형에는 ‘고전(古典) 문구’, ‘선왕(先王)의 정책’, ‘비유에 의한 판단’, ‘당대인의 말 인용’, ‘실제 사례’ 등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 문구, 선왕의 정책은 외적 권위를 가지는 논거들이라 할 수 있다. 권위적 논거가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자. 앞서 제시된 상소문 중에서는 김반의 상소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②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③ 엿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과거사의(朱子科擧私意)와 『경제육전』에 실린 태조 과거 성헌을 참작하여 시행...

①은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흩어지는 당시의 상황을 말한 뒤, 그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옛말을 인용한 것이다. 유생들이 학교에 오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날마다 매질하면서’에 대응된다. ‘제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유생들을 성균관에 모아 교육을 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 즉 진유(眞儒)를 배출하여 왕조의 기반을 이루는 유교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뜻을 이룰 수 이룰 수 없음을 가리킨다. 김반은 성균관 유생들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우려를 당대의 사회 문화 속에서 암묵적으로 모두들 옳다고 믿고 있는 옛말을 통해 내세워 자신의 상황 인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는 이어 ‘신은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장차 반드시 무무(貿貿)하여 진유가 없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뒤에 내고 있는데, 이는 옛말의 인용을 통해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후 ‘두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이은 표현에서 감정적인 호소까지 더한 것이다.

상대방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설득과 함께 감정적 호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득에는 반드시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청자로 하여금 슬픔, 분노, 죄악감, 두려움, 행복, 자랑스러움, 동정심, 향수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확인하는 화법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호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화법에서는 절대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거나 지루함을 느낄 때는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하기를 꺼린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 등의 감정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 호소는 논자의 의견의 정당함이 확고한 기반 위에 선 뒤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대방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⁶¹⁾

②는 문과 초장을 제술로 시험하면서 동료들의 문장을 베껴 모아서 표절하며 과거 합격의 요행을 바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초집을 엄금하는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자신의 의견을 고전 문구로 대신하였다. 이는 신하로서 왕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유교 사회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진 고전 문구를 가져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 정당화한 것이다. 여기서도 감정적 호소는 뒤따른다.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고전 문구로 이미 확보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뒤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신하로서의 충성심도 잃지 않았다.

고전 문구는 유교적 규범 하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는 것들이다. 중세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모두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이며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김반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옛말이나 고전 문구를 통해 내세움으로써 주관성은 지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사실은 김반의 의견이지만 마치 제 3인물의 의견인양 객관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제 3인물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뒤이은 자신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된다거나 마음이 아프다는 감정적인 말로 자신의 충성심을 내세움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도록 촉구하였다.

③은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과거 제도 개선에 대한 옛 성현의 글과 선왕의 정책을 참작하여 시행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옛 성현의 글과 선왕의 정책을 들어 말하고 있다. 옛 성현의 말과 선왕의 정책은 모범이 되는

61) 임영환 외, 앞의 책, 227쪽 참고.

이상적인 상(象)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한 대안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대안 제시에 앞서서 그 대안의 전반적인 틀이 옛 성현의 글과 선왕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을 먼저 밝혀 둬으로써 다음에 이어질 대안들이 설득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상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경전들, 그 경전에 나오는 규범들은 모두 중세의 유교적 규범 하에서는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이들 대상들이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적인 규범, 혹은 절대적인 선(善)으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은 설득의 전략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도달해야 할 목표 혹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태도적·행동적 차원의 변화는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나아감을 의미하고 이러한 나아감의 잠재적인 도달점은 ‘선(善)’의 속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⁶²⁾ 결국 상소문은 옛말이나 고전 문구, 선왕의 정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들은 모두 유교적 세계관 내지 중국 중심의 중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권위는 그것이 통용되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힘은 발신자에게는 설득적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을 제공해주고, 수신자에게는 복종의 무엇으로 작용한다. 결국, 당대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권위로 작용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목표 향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설득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는 상대방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거기에는 당대의 문화적·역사적 관습을 활용하는 문제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상, 혹은

62) 염은열, 앞 논문, 91~92쪽. 여기에서는 권위적인 논거를 내세운 이와 같은 설득 전략을 ‘이상적인 동일시의 대상(목표)을 상징’이라고 말하였다.

도달해야 할 목표 향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설정된 목표 향은 상대방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³⁾

다음은 ‘비유에 의한 판단’과 ‘당대인의 말 인용’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변계량의 상소문에서 이와 같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그 강명(講明)하고 저술(著述)하는 것이 비록 각기 장단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어찌 향 풀(薰)과 악취 나는 풀(蕪), 얼음과 솟처럼 상반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② 문신 이색이 말하기를, ‘정몽주는 강명을 잘하고, 이숭인은 제술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숭인의 강명과 몽주의 제술도 또 어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①은 강명과 제술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상반되는 관계를 가진 대상들, 즉 ‘향 풀과 악취 나는 풀’, ‘얼음과 솟’을 들어 비유하였다. 비유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①에서는 강명과 제술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필연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 풀과 악취 나는 풀’, ‘얼음과 솟’으로 비유되는 상반 관계와 강명과 제술의 관계는 크게 대비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하여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강명과 제술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의견은 ②에서 구체화 된다. ②에서는 이색의 말을 인용하여 정몽주와 이숭인에 대해

63) 염은열, 앞 논문, 87~88쪽, 94쪽 참고.

‘강명을 잘 한다’, ‘제술을 잘 한다’고 각기 따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특히 뛰어난 실력 하나를 말한 것이지 다른 하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강명과 제술을 따로 평가하고 있지만, 제술에 뛰어나자면 기초 학문인 강명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이는 다른 하나의 능력 또한 인정하고 들어간 평가인 것이다. 당대인의 말에서 강명과 제술은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증 과정 속에는 논자 뿐 아니라 상대 또한 이색의 말 속에 담긴 ‘정몽주’와 ‘이승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비유에 의한 판단’과 ‘당대인의 말 인용’의 유형은 설득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기보다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다. 강명과 제술의 관계를 입증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상이나 글을 통해 인식하게 하여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중국에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의견 동조로의 유도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사외문문이다. 앞의 논거들이 이해를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외문문은 상대방의 의견을 제한하여 논자의 의견에 수긍하도록 하는 설득력을 갖게 한다.

외문문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에 비해 공손한 표현이다. 그러나 수사외문문은 형식 자체가 응답 형식을 미리 규정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공손성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답변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예법상의 공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수사외문문은 전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제’는 인지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인지 내용을 한정함으로써 그 인지 내용을 인정하게 만드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보다 한층 설득력을 갖는다. 상대방은 자신이 ‘그렇다’나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는 느낌을 가지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본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⁶⁴⁾

①과 같은 의문문은 ‘향 풀과 악취 나는 풀, 얼음과 솟은 상반되는 관계이다’라는 전제와 ‘강명과 제술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두고, ‘강명과 제술의 관계는 상반되어 용납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게끔 하고 있다. ②와 같은 의문문에서도 ‘이승인은 제술을 잘 한다고 평가받지만 강명도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 ‘정몽주는 강명을 잘 한다고 평가받지만 제술도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상대방은 강명과 제술의 관계를 분리시켜 보지 않는 이러한 일련의 인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를 인정하게 되므로 뒤에 이어지는 ‘제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서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상대방의 의견에 의문 없이 수긍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다룬 논거의 유형인 ‘비유에 의한 판단’과 ‘당대인의 말 인용’은 수사의문문에서 전제로 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다른 시각으로 흘러갈 가능성 등이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논거 자체가 설득력을 크게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마련해주어 설득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에 대한 예를 김반의 상소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재

64) 염은열, 앞 논문, 83~85쪽 참고.

(齋)에 있으면 책은 덮어 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유히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목(科目)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하필 고심하고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한 뒤에라야 과거에 합격할 것인가.’ 하면서 모두 글을 읽으려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고를 청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갓 오고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에 글 읽기에 전심하겠습니까

김반은 성균관의 유생들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하는 것 같다는 자신의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길게 서술하였다. 날마다 배우기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고심하고 이치를 탐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유생들의 모습에서부터 왜 글 읽기에 전심하지 않는지, 유생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문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접하면서 상황을 인식하고 심각성을 인지할 것이다. 사례가 구체적일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험 내용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유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관찰 결과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적인 인식 능력에 따라 경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 자료로 적절한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은 증거 자료로서 특별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⁶⁵⁾

여기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사례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논자인 김반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설득 화법에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화자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내용의 신뢰도가 결정될 수 있는데, 설득에서의 이러한 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Ethos라고 지칭했다. 화자의 사교성, 활력, 신체적인 매력, 청자와의 경험의 유사성 등이 호감을 주어 이러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 요소는 화자의 능력과 인격이다. 여기서의 능력은 주로 화자의 지력과 주제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관련된 것이고, 인격은 화자의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청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심 정도와 관련된다. 청자는 화자의 능력과 인격에 호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마련이다.⁶⁶⁾

김반은 1399년(정종 1)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405년(태종 5) 성균주부가 되었으며, 이어 성균직강으로 승진하며 성균관에서 20년간 재직하였다. 그리고 김구(金鉤)·김말(金末)과 함께 같은 때에 성균관에서 교수하면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 사람들이 이들을 ‘삼김(三金)’·‘경학삼김(經學三金)’ 혹은 ‘관중삼김(館中三金)’이라고 일컬었다⁶⁷⁾고 한다. 성균관에서 20년간 재직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그의 관찰과 경험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이 실제 사례는 상대로 하여금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감을 부여하고 관심을

65) 임영환 외, 앞의 책, 214~215쪽 참고.

66) _____, 앞의 책, 217~218쪽 참고.

67) 김남이, 앞 논문, 139쪽.

유도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사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적절하게 제시해야 설득적 효과를 가진다. 이를 위해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나 논자 자신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논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에는 앞서 제시한 논자의 능력과 인격 이외에도 진지하고 확신감에 차 있는 모습, 상대방과의 일체감 형성 등이 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의 말하기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2. 교수-학습의 실제

1) 논쟁 배경 이해하기

화법에서 상황 맥락 요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화자와 청자가 그들을 둘러싼 상황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의사소통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화법 과정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도 그들의 상황 맥락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소문 자료를 토론 준비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예시 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자료 이해와 분석을 돕기 위해 상소문이 담고 있는 논쟁 배경에 대한 학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소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메시지이지만,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대신들의 집단 논쟁의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다. 임금과 조정 대신들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이고 양측의 논쟁자가 가지는 가치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록 한다. 논쟁 배경 이해를 위한 학습은 다음의 활동지를 통해 실시한다.

▪ 다음 글을 읽고 강경-제술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자.

세종배

강경 (구술시험) VS 제술 (논술시험)

대표자 : 김반

대표자 : 변계량



조선 초기에는 국가를 건설하는 대업을 이루고 국가의 기반을 만들고자 군신이 분투하던 시기이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야 했고, 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이념적 기반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야 했다. 따라서 세종대는 유교적 이상주의의 비전에 근거하여 예악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문물제도의 완비를 추구하며 정전(正田)을 형성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이상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선비를 배출하고, 성리학을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과 학문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제도를 강경으로 할 것인가 제술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과거를 통해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성리학을 탐구하여 유교적 이상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서를 대상으로 하고 경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경과 제술은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 합격을 목표로 하여 공부하자면 이 두 영역의 학습방식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강경론자와 제술론자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다.

제술론자는 강경은 제술의 기초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시험 방식으로 삼게 되면 양기 위주의 학습방식이 주가 되고, 이에 따라 천박한 학문 풍토가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강경론자는 강경과 제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절된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제술을 시험 방식으로 삼게 되면 유생들이 성리학의 근원을 연구하지 않고 모범 답안을 베껴 모아 요행을 바라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초기에는 강경론자들이 조정 성헌(법률)이라며 상왕 태종이 제정한 정유과법(丁酉過法)을 들어 강경 시행을 주장했으나 논쟁이 전개될수록 이 논리만으로는 강경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문과 초장에서 제술로 시험을 보인다는 결론이 내려진 뒤에도 강경론자들은 제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그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 문과 초장 :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과거제도로써 '초장-중장-종장'의 세 차례 시험을 치른다.

<참고>

강경 : 경서에 대한 구두(口頭)와 훈석(訓釋: 한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함)을 기본으로 한 암기식 구술시험

제술 : 경서의 내용으로 정치적 사안을 분석하고 견해를 작성하거나 시문을 창작하는 필기시험

1. 세종대에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던 가치는 무엇인지 위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자.
2. 제술론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3. 강경론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표 4> 논쟁 배경 이해를 위한 활동지

이는 학습 자료로 삼고자 하는 상소문이 작성된 시기의 강경-제술 논쟁이 벌어졌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양측의 논쟁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한 글을 읽고 학습자가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글 자료만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학습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료를 통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다시 정리해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논쟁 배경을 이해하는 활동은 양측 논쟁자의 가치 기반과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입론 준비’ 원리 학습하기 : 김반 상소문 활용

입론은 논제에 대한 긍정 측 또는 부정 측의 변론이다. 왜 그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 즉 자료, 문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검증한다. 입론 준비 단계에서는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다. 그리고 논제가 문제가 되는데 따른 기존의 인식과 원인을 정리해야 한다. 김반의 상소문도 국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정리하고 이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과거에서의 제술 시행을 문제 삼아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김반의 상소문 구조 속에서 입론에 필요한 논의 전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⁸⁾

문 제	종학과 국학을 설치하여 사람을 만드는 도가 극진하다. (기존의 인식)
제 기	국학의 생원들이 배움을 게을리 한다. (논제 제시)
원 인	문과 초장을 제술로 시험하여 의의초집의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규 명	(원인)
해결책 제시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 하면 국학이 제 기능을 찾아 사람을 만드는 도를 이룰 수 있다. (주장)

<표 5> 상소문 구조와 입론 논의 전개 요소의 관련성

김반의 상소문의 문제 제기, 원인 규명, 해결책 제시의 구조가 입론의 전개 구조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소문 분석 활동을 통해 입론

68) 입론 논의 전개 요소들은 괄호 안에 정리하였다.

전개에 필요한 논의 전개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 논증 구조에는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김반의 상소문의 거시적인 논증 구조는 문제-원인-해결 조직이다. 미시적인 구조는 주장에 이르는 논증 과정과 흐름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상향식으로 미시적인 구조와 설득 전략을 살펴본 후 거시적인 논증 구조를 발견하는 식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 : 의미맵 만들기

미시적인 논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찾고 그에 이르는 논증 요소들을 찾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은 의미맵(Semantic Mapping)⁶⁹⁾이다. 의미맵은 쓰기교육의 쓰기 전(前) 전략 면에서도 효용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토론을 위한 내용 조직 단계에서도 그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 의미맵은 아이디어를 조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시화되고 구조화된 사고 전략으로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구조나 개요로서의 역할을 한다. 상소문 자료에서 보이는 생각이나 정보를 몇 마디 단어나 구로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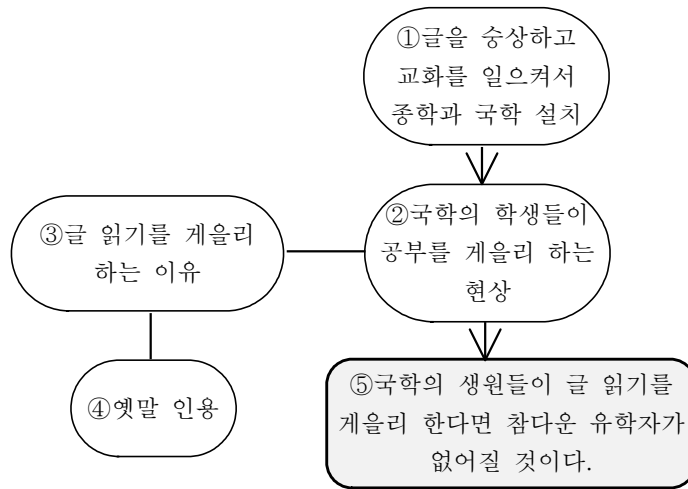
의미맵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 기반을 활성화하고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웹(Semantic Webbing), 구조맵(Plot Maps), 거미맵(Spider Map)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거미맵으로 불리는 이유는 거미의 다리가 몸체로부터 뻗어 나온 것과 같이 중심점과 다양한 수준의 다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대상, 주제, 개념 혹은 문제가 중심에 배치되고 지지정보는 다리에 배치될 수 있다. Freedman & Reynold에 의하면 의미맵은 4가지 구성요소를

69) 최현섭·박태호, 「과정중심의 전략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4, 224~226쪽. 의미맵에 관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였다.

가지고 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핵심적인 질문과 개념 : 핵심적인 질문이나 개념은 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맵을 만들기 위해 학습자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의 대부분은 핵심적인 개념이나 질문들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
- 하위범주 : 질문을 명료화 하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개념에 대한 하위범주가 있어야 한다.
- 핵심개념과 하위개념의 연결 : 핵심개념과 하위개념을 선이나 화살표로 연결한다. 맵의 하위개념은 상세화, 추론, 일반화 등을 이용하여 선이나 화살표로 관계를 구분한다.
- 하위개념간의 연결 : 하위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미맵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의미맵 그리기의 시범을 보여주어 이해를 돕는다. 의미맵은 중심 문장은 굵은 색 테두리나 색칠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들의 연결은 화살표로 하되, 연결되는 내용의 경우 선으로 관계를 표시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자료나 주제를 사용하여 예시를 드는 것보다 교사의 시범 후 학습자 스스로가 활동해야 할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편론의 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 중 첫 번째 문제 제기 부분을 대상으로 의미맵 그리기의 예시를 보여준다. 문제 제시 단계의 의미맵 그리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문제 제기 단계’ 의미맵 그리기의 예

교사는 먼저 주장을 나타내는 중심 문장을 찾고 뒷받침 문장들이 중심 문장의 내용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뒷받침 문장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논거로서 작용함을 설명한다. 의미맵은 논증 전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의미맵은 긴 문장의 글을 간단한 구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다. 주장과 논거를 찾았다면 어떠한 논거를 들어 신뢰성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제 경험(②)과 옛말(④)을 언급함으로써 주장에 이르는 근거들을 더욱 신뢰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실제 사례와 옛말 인용이 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문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한다.

논증 전개 구조와 논거의 유형까지 파악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설득 전략에 주목한다. 논증 전개 구조와 논거가 비교적 보편적인 양상을 띠며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한 반면, 설득 전략은 청자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분석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사용한 설득 전략은 그 단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도록 상대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에 유의하여 논증 구조 단계별 설득 전략 지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은 자신들이 인식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측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 기반을 참고하여 어떠한 자극을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원인 규명 단계에서는 제시한 문제의 원인을 상대측도 수궁하도록 구사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김반의 상소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측(왕)이 실시하고 있는 과거 제도 정책 탓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대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측이 이를 수궁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에게 상소문의 설득자와 피설득자의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는 사실을 제시하여 생각의 발판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제시 단계에서는 여기서 제시한 해결책이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상대측이 믿게끔 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김반이 자신이 주장하는 해결책의 유인가를 높이기 위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학습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의미맵 그리기를 통해 미시적인 논증 구조와 논거의 유형, 전략을 파악하는 활동은 다음의 활동지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활동지는 상소문의 거시적인 논증 단계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한 장씩 총 세 장을 준비한다.

* 다음은 김반의 상소문 중 첫 번째 부분이다. (1/3)

①우리 조정에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척(宗戚)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국학(國學)이 있어서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가

르치고 길러 사람을 만드는 도가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②그러나 한 나라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③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재(齋)에 있으면 책은 덮어 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유히 날을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구태여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면서 모두 글을 읽지 아니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갓 오고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에 글 읽기에 열중하겠습니까. ④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⑤신은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반드시 말과 행동에 배움이 없게 되어 참다운 유학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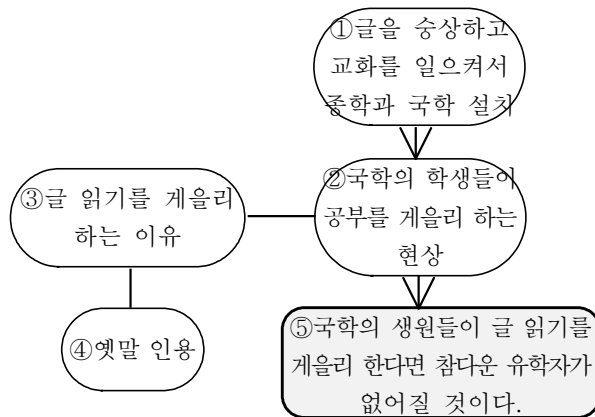
↖ 주장 (중심문장)

* 종학(宗學): 조선시대 종실(宗室)의 교육을 담당한 관청

* 종척(宗戚): 종실 자손

* 국학(國學): 성균관(조선의 고등 교육 기관)

1. 위의 글에서 주장(중심문장)과 근거를 찾아 의미맵을 그려보자.



2. 어떠한 유형의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② - 실제 사례

④ - 옛말 인용

3.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김반은 상대방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논쟁의 배경 참고)

김반이 살았던 당시에는 새 국가가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이념인 유교 사상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 배출을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원들의 배움이 부실하여 참다운 유학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김반의 주장은 국가적 이상에 어긋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대의 주요 관심사를 끌어다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표 6>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1

김반 상소문의 첫 번째 부분(문제 제기 단계)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활동이므로 위와 같이 활동 결과가 나타난 상태의 학습지를 배부한다. 두 번째(원인 규명 단계)와 세 번째 부분(해결책 제시 단계)은 점차 교사에게서 학생으로 책임이 이양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준비한다. 의미맵 그리기의 경우, 논증 단위 연결에 있어서 생략된 논거나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찾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의미맵에 제시해 놓는다. 생략된 논거나 주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문장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은 미리 제시된 생략된 논거나 주장처럼 애써 문장으로 자세히 쓸 필요는 없음을 말해 준다.

교사가 학생 활동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번, 2번, 3번 활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전 활동은 다음 활동의 중요한 기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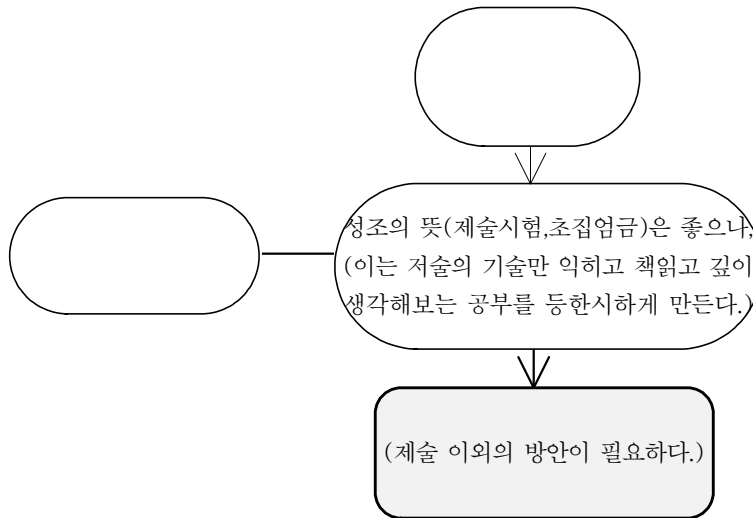
식이 되므로 각각의 활동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의 피드백 시간을 가져 다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학생들이 논거의 유형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할 때 ‘고전 문구’, ‘선왕의 정책’, ‘비유에 의한 판단’, ‘당대인의 말 인용’ 등의 용어 사용 없이 의미를 풀어서 말할 수 있다. 이때는 교사가 피드백 할 때, 용어를 언급하며 정리해 주도록 한다. 논쟁 전략 부분은 위의 첫 번째 부분에서 미리 제시한 것처럼 상대 측 자극의 중점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각의 전략적 방법의 중심 내용들, 이를 테면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에서 청자의 의견 동의(인정), 이어지는 반박 등의 사항들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의 편리성을 위해 각각의 전략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를 구태여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과 약속을 통해 만들어도 된다. 각 활동의 예시 답안은 앞서 상소문 분석에서 다룬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 다음은 김반의 상소문 중 두 번째 부분이다. (2/3)**

이는 다름이 아니라, *초집을 금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오나, 동료들의 문장을 베껴 모아서 표절하며 과거에 합격하는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성조에서 강경(암기식 구술시험)을 파하고 의의(필기시험)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그윽이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 초집 : 어떠한 글을 간략하게 뽑아서 모으는 것
- * 예조 : 조선시대의 관청으로서 교육(학교와 과거)에 관한 일도 관장함
- * 월강(月講) : 예조의 당상관이 매월 한 차례씩 보는 강경시험

1. 위의 글에서 주장(중심문장)과 근거를 찾아 의미맵을 그려보자.



2. 어떠한 유형의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상대방도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김반은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논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는 사실 참고)

<표 7>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2

*** 다음은 김반의 상소문 중 세 번째 부분이다. (3/3)**

의의(필기시험)로써 시험하기 때문에 국학의 여러 학생들이 성현의 도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실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에도 누(累)가 미칩니다. 신은 늘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과거사의(朱子科擧私議)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실린 태조의 과거 제도에 대한 법률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중략...) 흠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장차 참된 유학자가 배출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합당할 것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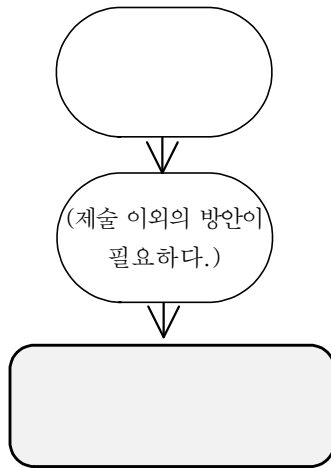
*『한묵전서(翰墨全書)』 : 명나라 때 왕우가 편찬한 책으로, 편지나 의례의 서식 등을 모아 놓은 것

* 주자과거사의(朱子科擧私議) : 주자(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의 과거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 생원 : 성균관의 학생

* 교도 : 교관(敎官)

1. 위의 글에서 주장(중심문장)과 근거를 찾아 의미맵을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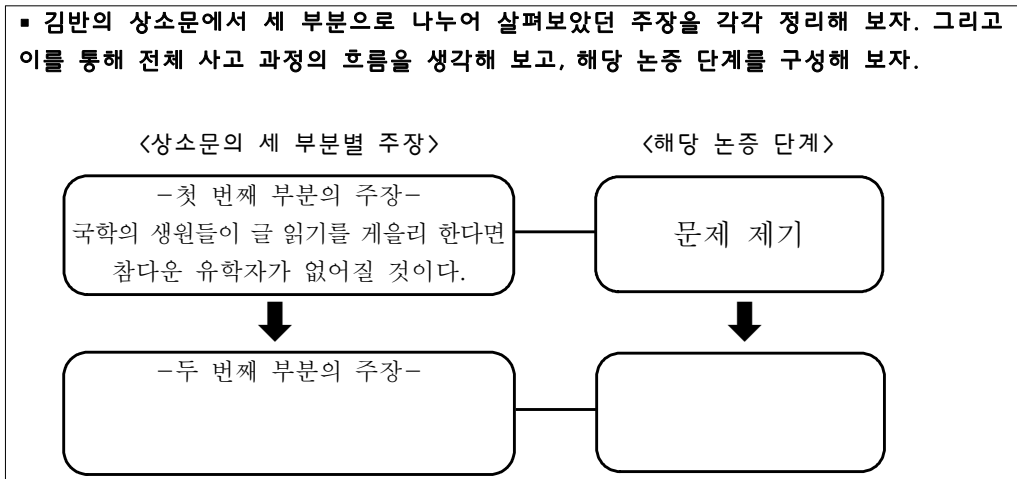
- 2. 어떠한 유형의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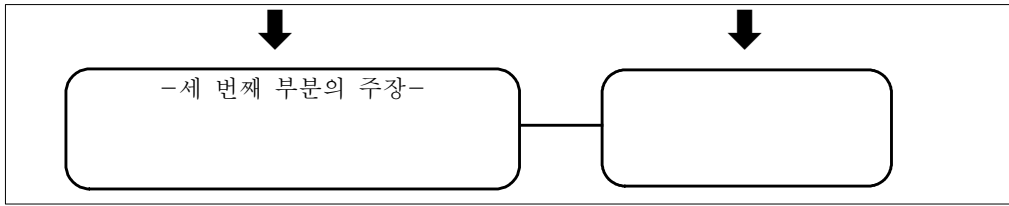
- 3.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상대방도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김반은 상대방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표 8> 미시적인 구조와 전략 탐색을 위한 활동지 3

② 거시적인 구조 탐색 : 단계도 만들기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김반의 상소문의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의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득 구조 탐색을 실시하였지만, 본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인지할 수 있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활동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9> 거시적인 구조 탐색을 위한 활동지

이는 단계도 만들기이다. 앞서 분석하였던 부분에서 주장의 내용만을 가져다가 차례로 정리해 봄으로써 논자의 논지 전개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계도에 맞추어 정리된 글의 내용은 글 전체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내용이 어떠한 흐름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이 활동에서도 앞서의 미시적인 구조 분석에서와 같이 첫 번째 부분은 교사의 시범을 통해 보여준다. 사고 과정 흐름을 생각해 보고 논증 단계를 구성해보자는 지시문이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학의 생원들이 학문 탐구를 게을리 하여 참다운 유학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교육 현실에 대한 논자의 문제 인식이 담긴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제 인식과 그 심각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므로 ‘문제 제기’라고 정리해 둔다. 나머지 빈 칸은 앞서 상소문 분석에서 다루었으므로 예시답안은 생략한다.

기존의 학습은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는 흐름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파악한 뒤 이것으로부터 큰 틀의 양식을 찾아내는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간추려 요약하고, 다시 묶어보며 정리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큰 틀이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다시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보여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비구조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답을 들어본 이후 다시 정리해 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3) ‘반대 신문 준비’ 원리 학습하기 : 변계량의 상소문 활용

반대 신문은 긍정 측 또는 부정 측의 입론을 듣고, 상대측 주장의 모순이나 문제점 혹은 의문점 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것이다. 반대 신문의 핵심은 긍정 측 또는 부정 측의 입론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 논증의 불충분함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다. 긍정 측 또는 부정 측은 상대측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추궁한다. 반대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박하는 측은 핵심을 적중하는 질문을 던지고, 논박을 받는 측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변계량의 상소문은 김반과 같은 강경론자가 가지고 있었던 강경과 제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논박함으로써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 해서 안 된다. (제술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 글이다. 상대방이 입론에서 제시한 이유를 적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와 이유에 대한 사례나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의 전개 구조와 비슷한 체계를 갖는다. 변계량의 상소문에서 반대 신문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⁷⁰⁾

쟁점 도출	강경론자들은 제술로 시험하면 말기(末技)만을 추종하고 경서를 강송하는 일은 게을리 할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방 입론의 이유)
논박	비유, 당대인의 말 인용 ⇒ 강명과 저술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제술에 뛰어나기 위해서는 독서(강경)에 먼저 능통해야 한다. (반대하는 이유) 시험을 강경으로 하면 성리학의 심오한 뜻과 글 짓는 재주를 일으키지 못한다. (반대하는 이유)
제안	강경으로 해서 안 된다. (정리, 주장)

<표 10> 상소문 구조와 반대 신문 논의 전개 요소의 관련성

70) 반대 신문 구성 요소는 괄호 안에 정리하였다.

반대 신문의 준비는 상대측이 입론에서 설득 목적 달성을 위해 내세운 근거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기본이 된다. 실제 토론 준비 과정에서는 상대측이 내세울만한 예상되는 논거들을 생각하여 그에 대한 논박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박 방식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김반의 상소문 분석에서 정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학습자가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변계량의 상소문에서 반대 신문 내용 조직의 절차와 논박 과정을 익힐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활동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다음은 변계량의 상소문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과 초장에서 *의(疑)와 의(義)를 시험한다면 사람들은 다 제술의 *말기(末技)만 추종하여 경서의 강송에 힘쓰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강경하고 제술하는 것이 비록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어찌 향풀과 악취 나는 풀, 얼음과 솟처럼 상반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문신 이색이 말하기를, ‘정몽주는 강경을 잘하고, 이송인은 제술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인의 강경과 몽주의 제술도 또 어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제술에 뛰어나자면 반드시 독서에 먼저 정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은 곧 배우는 자로 하여금 오로지 기송과 훈고에 힘쓰게 하여 뜻이 좁고 기운이 졸렬하여져서 마침내는 성리(性理)의 심오한 뜻에 통하지 못하며, 글 짓는 재주도 또한 조잡하고 좀스러워져서 대체로 배우는 자의 큰 탈이 되니 실로 유학의 도의나 문화를 흥기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근의 상서에 기재한 것이 어찌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못한 이유의 여섯째입니다.

* 문과 초장 :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과거제도로써 ‘초장-중장-종장’의 세 차례 시험을 치른다.

* 의(疑)와 의(義) : 경전(사서오경)의 본문에 해석을 가하면서 일종의 논술하는 것

* 말기(末技) : 변변치 못하고 쓸모 없는 서툰 재주

1. 위 글을 논증 단위로 나누어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쟁점 도출 (김반 입론의 이유)	①
논박 (반대하는 이유와 이유에 대한 설명)	②
	③
	④
제안 (정리)	⑤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 ⇒생략된 내용

2.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변계량이 김반의 상소문 내용 중 수용하는 부분과 논박하는 부분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논박 내용을 1번 분석 결과에서 찾은 논증 번호로 적어 보자.

<조건>

- ① 논박은 실선, 수용은 점선으로 연결한다.
- ② 김반의 상소문 중 굵은 실선으로 된 네 부분이 연결 대상이다.
단, '문제 제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김반의 상소문〉

대안 문과 초장을 강경으로써 시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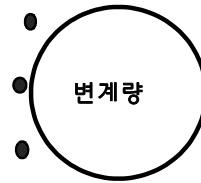
원인 규명 문과 초장의 제술 시험은 의의초집의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경서의 말기(末技)만을 추종하는 폐단을 가진다.

필요성 제술 과목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문제 제기 국가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참된 유학자를 배출해야 하는 국학에서 유생들이 배움을 게을리 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가치 기반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것은 국가적인 비전이다.



3. 변계량이 김반의 상소문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들어 논박해 보자.

부정하는 논리(주장) :

근거 :

<표 11> ‘반대 신문 준비’ 원리 학습을 위한 활동지

이 활동지의 활동들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전 활동이 잘못 이루어지면 다음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교사는 각 활동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확인해보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3번 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 부정하는 논리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토론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부수적인 활동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활동도 가능하다. 현재와의 연결점을 찾아 현재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김반의 상소문 내용들을 반박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논박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현재와 과거의 가치 차이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4)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의 실제

여기에서는 앞서 원리 학습을 통해 익혔던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의 전략을 활용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입론과 반대 신문의 개요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상소문 자료를 활용하여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에 필요한 원리 학습을 하였으므로 상소문의 논증 방식을 전범으로 삼아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역할 놀이를 활용하면 흥미로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두 팀을 선정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청중이 되며 교사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청중을 둔 토론은 청중 설득을 목적으로 청중을 향해 발언하는 청중 지향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상소

문을 활용한 공적 토론 준비가 이루어지는 이 활동에서는 역할 놀이를 활용하여 일반적 토론과 달리 상소문의 발언 형식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진행한다. 즉 청중 중심이 아니라 임금과 같은 주재자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진행한다. 교사를 임금으로 설정하여 토론 할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삼고, 찬반 양 팀은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한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상소문에 사용된 논증 방식과 논거 유형 뿐 아니라,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있는 표현 방식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청중은 논쟁 과정을 관찰하고 메모하면서 어떠한 방식이 설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청중에 의한 토론 평가를 진행할 때, 청중에게 ‘내가 임금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의 의견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수집할 때 보다 풍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도록 찬반으로 나뉘는 팀을 선정하기 이전에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진다. 또한 활동지에는 상소문의 형식을 전범으로 삼아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상소문의 원리를 활용한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한 활동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활동을 진행할 때,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한 글쓰기는 결코 완벽한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보자.
(찬성측: 사이버모욕죄 시행 찬성 / 반대측: 사이버모욕죄 시행 반대)

[쟁점법안 지상토론] ② 사이버모욕죄 등 사회개혁법안
한나라 “허위사실 유포 근절”, 민주 “표현의 자유 통제법”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회개혁법안’에는 악플(악성댓글) 근절을 목표로 한 사이버모욕죄와 집시법 개정안(‘복면시위금지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등 찬반 논란이 첨예한 법안이 다수 포

함돼 있다.

여당은 다중의 무책임한 언어·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야당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용산 참사' 등의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논쟁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의견을 들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필요한가.

나경원 의원: 사이버상 모욕은 오프라인상 모욕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어렵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고,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침해나 욕설의 자유가 아니다.

전병헌 의원: 반대 잡겠다고 추가상간 태우는 격이다. 악플은 네티즌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가 아니어도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악플 예방이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감시통제법이다.

-사이버모욕죄에는 친고죄 규정이 없는데.

나 의원: 현실 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이 현장에 있지 않는 한 모욕행위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모욕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전 의원: 이 부분이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감시통제법이 되는 이유다. 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으로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 특정 대기업 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비판과 지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이 사이버모욕죄에 영향을 줄까.

나 의원: 미네르바는 모욕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영향을 줄 사안이 못된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아무 얘기나 하던 것을 표현의 자유로 생각한 측면이 있으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전 의원: 미네르바 구속은 과도하다. 일부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최진실법'으로 보고 악플로부터 구제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네르바 사태로 인터넷 통제라는 본질이 알려지면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2009.02.02. (서울=세계일보) 하동원·이강은 기자

1. 찬성측 주장을 적고, 그 근거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위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 포함)

2. 반대측 주장을 적고, 그 근거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위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 포함)

<표 12>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1

▪ <입론> 앞서 분석한 상소문의 논증 구조와 논거, 전략, 표현 방식을 참고하여, 찬성/반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해 보자.

논거 유형 : 고전(古典) 문구, 선대 정책, 비유에 의한 판단, 당대인의 말 인용, 실제 사례 등.
 표현 방식 : 감정적 호소, 수사의문문 등.

<거시적 논증 구조>

문제 제기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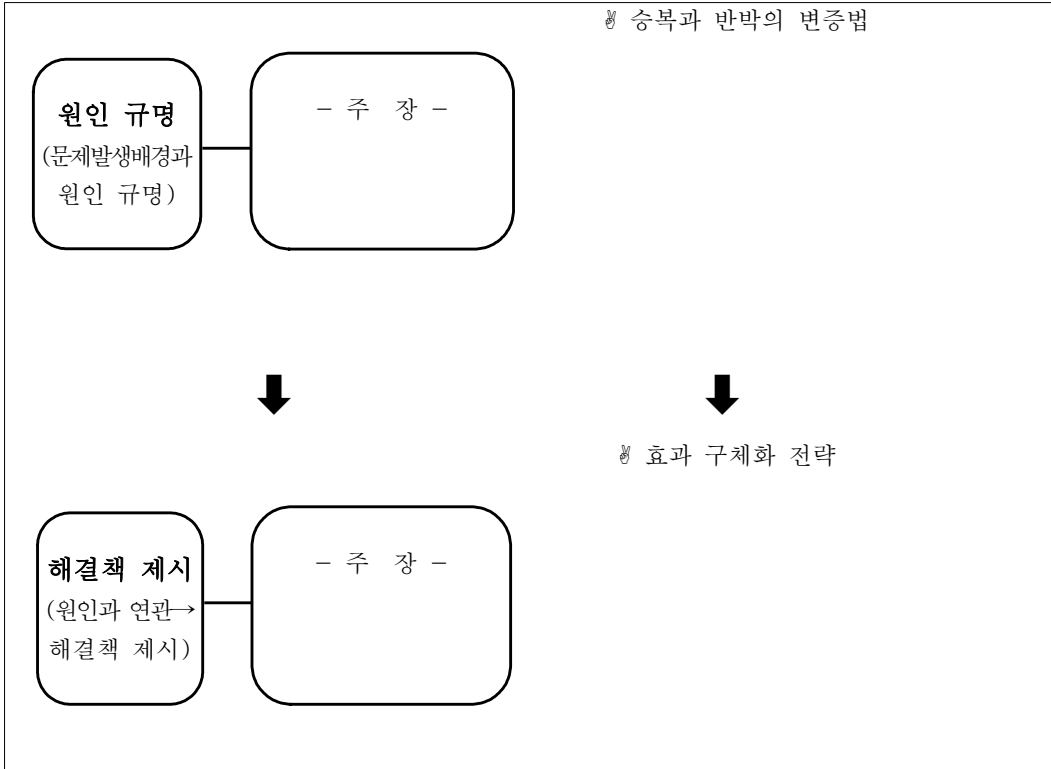
- 주장 -

↓

<미시적 논증 구조>

필요성 전략

↓



<표 13>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2

▪ <반대 신문> 다음 활동을 통해 반대 신문을 준비해 보자.


1. 상대 측 주장에서 예상되는 근거를 정리해 보자.

2.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의 빈칸을 채우고, 수용하는 부분과 논박하는 부분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논박 내용을 화살표 옆에 적어보자.

<조건>

- ① 논박은 실선, 수용은 점선으로 연결한다.
- ② 굵은 실선으로 된 네 부분이 연결 대상이다.
단, '문제 제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상대 측 논변〉	
대안	
원인 규명	
필요성	
문제 제기	<p>악성댓글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사이버 표현문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p> <p>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p>
가치 기반	



우리 측
(찬성/반대)

〈표 14〉 실제 토론 준비 활동지 3

V. 결 론

실제 토론 활동을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또는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 나갈지 등을 준비해야 성공적인 공적 토론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즉 공적 토론에 있어서 입론과 반대 신문을 위한 개요 작성은 실제 토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개요 작성에 필요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연습을 위한 예시 자료가 부족하며, 그나마 소개된 학습 내용들은 화법 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시대의 것, 서양의 것만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과 우리는 문화적 맥락과 대화 맥락, 논증 관습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전통 속에서 토론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상소문 자료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찾아, 토론에서의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2장에서는 설득 화법에 있어서 내용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학교 교육은 이론과 실체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학습의 강조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화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조직의 기능과 전략에 대한 원리 학습 내용이 단편적 지식의 설명식 나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부실한 원리 학습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역에서조차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실용성 위주로 형식 익히거나 수행에만 치우쳐 성공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설득을 위한 방법적 지식의 내용뿐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발판 역할을 해줄 모범 예시가 동시대의 것, 서양의 것에만 편향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부족한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득 화법의 내용 조직 방법 학습은 다양한 상황에 활용 가능한 유연한 지식 제공을

위해 설명식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자가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관찰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가 필요하므로, 교육 내용에서 배제되었던 우리 고전의 양식도 다루어져야 함을 말하였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고전 예시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고전에서 토론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상소문이 화법의 새로운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그 교육적 가치를 논하였다. 상소문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에 대한 발화 행위라는 점에서 독특한 상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에도 가령 직장 상사와의 토론,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토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소문은 넓은 식견과 정확한 안목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표현으로 잘못을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토론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도 부합하여 모범 예시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상소문이 문어 자료라는 특성 때문에 화법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여부에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그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상소문의 설득 표현과 생각의 틀에는 어떠한 삶의 조건이 관련되어 있는지, 논쟁 과정의 양식화에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론해가면서 설득 화법을 구성하는 일련의 요소들을 초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설득 화법은 사회·문화적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문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문화적 맥락, 논증 관습 속에서의 설득적 의사소통 방식을 상소문을 통해 획득하고 이어나갈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매체만 다를 뿐 언어행위의 전 단계의 과정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통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소문은 대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4장에서는 조선조 강경-제술 논쟁 과정에서 나온 김반과 변계량의 상소

문을 대상으로 토론의 입론과 반대 신문 준비 단계에 필요한 내용 조직 방법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반의 상소문은 입론의 논증 구조에 대입되고 변계량의 상소문은 반대 신문의 논증 구조에 대입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소문 분석으로 추출된 설득 구조와 전략, 논거들을 가지고 토론 준비 단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반과 변계량 상소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반의 상소문은 ‘문제 제기 → 원인 규명 → 해결책 제시’라는 문제-원인-해결 조직을 거시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필요성 전략, 승복과 반박의 변증법, 효과 구체화 전략을 논쟁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변계량의 상소문은 ‘쟁점 도출 → 논박 → 제안’의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강경과 제술을 분절된 것으로 보는 강경론자의 전제를 논박하였다. 김반 상소문의 가치기반은 수용하면서 ‘원인 규명’과 ‘해결책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펴고, 효과 공격 전략을 논쟁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상소문은 고전 문구나 선왕의 정책 등 권위적 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강화하였으며, 비유에 의한 판단과 당대인의 말 인용을 논거로 삼아 수사의문문에서 전제로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20년간 재직 중에 쌓은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 인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소문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논쟁 배경을 이해하고 김반과 변계량의 상소문 논증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입론과 반대 신문에 필요한 내용 조직 구성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입론 준비를 위한 원리 학습에서는 김반 상소문의 거시적인 논증 구조와 미시적인 논증 구조를 탐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의미맵을 활용하여 미시적인 논증 구조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다시 묶어서 거시적인 논증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한

원리 학습에서는 변계량 상소문의 거시적인 논증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각 단계에 어떠한 사안들이 들어가는지 찾게 한 다음 그 사안들이 김반 상소문의 어떠한 내용을 논박하거나 또는 수용하고 있는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 과정은 아무런 사전 학습 없이 학생들이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교사의 시범을 우선으로 하며, 활동지에 문제의 조건과 도움말을 달아 적절한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한 상소문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입론과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상소문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토론 교육은 서양의 이론이나 동시대의 예시 자료만을 활용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고전의 토론 과정과 논변 구조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논증 장르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상소문을 활용하기에는 내용과 표현 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소문의 내용 중 학습자의 실생활에 부합되는 내용을 선정하고 표현 면에서도 어렵고 난해한 문장을 수정하여 큰 틀에서의 논증 구조와 흐름 등을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세종실록』

2.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주)대한교과서, 2001.

_____,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7.

김광해 외, 『고등학교 화법』, 형설출판사, 2005.

_____, 『고등학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 형설출판사, 2005.

이주행 외, 『고등학교 화법』, (주)금성출판사, 2005.

_____, 『고등학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2005.

이중구,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 2007.

_____, 『고등학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 세기문화사, 2007.

차배근, 『고등학교 화법』, (주)지학사, 2006.

_____, 『고등학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2006.

3. 단 행 본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엄훈, 『조선 전기 공론 논변 연구』, 역락, 2005.

이응백·이주행,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문학, 1992.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도서출판 박이정, 2000.

- 임영환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차배근,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주)사회평론, 2009.

4. 논 문

- 김남이, 「세종대 과거제도에 관한 논쟁과 유교문화 국가의 이상」 『민족문화사연구』 권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박재현, 「설득 메시지 조직의 교육적 원형」 『신청어문』 33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_____,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방인태, 「국어과 화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권 16, 국어교육학회, 2003.
 서유경, 「문학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 : <토끼전>의 어족회의 대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1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서희정, 「설화 교육을 통한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성당제, 「약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 36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엄 훈, 「조선 성종대 토론 문화 연구 : 유향소 복립 논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3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 오인환·이규완,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3.
- 이규완, 「상소에 인용된 고사의 설득 용도에 관한 연구: 태조~명종실록의 상소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004.
- 이대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방법 탐색(1)-고등학교 말하기 영역 ‘설득’ 단원을 중심으로-」 『청람어문학』 12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94.
- 이창덕, 「새로운 화법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 Vol.123, 한국어교육학회, 2007.
- 최인자,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 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6.
- 최현섭·박태호, 「과정중심의 전략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2005.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Speech Education Using "Sang So Moon(Memorial to the king)"

HaNa, Yun

Majoring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should be improved to every individual after being grown up the ability which is needed in professional and social activities i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What it is required at the process of modern society that the various information is in collision with the value is the ability which could communicate our own opinions clear and persuade the other people. Particularly, in case of the debate which is with the chairman in social structure it is required the debate ability with right manner and formality on public situation. To progress successfully this sort of public debate prepared writing(outline preparation) for speaking is important. But it turned to be not fulfilled well of this kind of education at school educatio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is kind of problem which is drawing up the outline for public debate have been

careless despite of the importance. The present system of education is hard to make progress in quality. Because it would rather real activity-centered speaking skills than for the progress of preparation about how and what should we write. Also it seems that there are no consideration of cultural identification because it deal with the only format and procedure which has been developing in the West. The exemplified contemporary data is not adequate for learning debate format with proper manner and form to public debate. In consequence I'm going to suggest debate education using classic Sang So Moon as a complementary measures. "Sang So Moon(Memorial to the king)" is the writing which includes the argument about the politics under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retainer. Therefore it deserve to be a model which could learn the format of public debate that there is a chairman.

This study is aimed at defining the outline preparation which is required the step contained by the questioning between argument and opposition of the debate process and showing some plans of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verified the importance of content construction on persuasion speech and reviewed critically the situation that school education is carried out well. And it is drew the necessity of material of classic example, and discussed the educational values about Sang So Moon's speech use educationally. The study is and adequate Sang So Moon. It is chosen Kim Ban and Byen Gye-Ryang's Sang So Moon which is from "Recite a Confucian classic(講經)-composition(製述) argument" during King

Sejong period. Also the macroanalysis, microanalysis and controversy strategy through the process that the students find it by themselves. Besides it shows the education plan which helps to get ready the questioning between argument and opposition using Sang So Moon directly.

The study which is used as Sang So Moon educationally has been staying yet at the beginning step because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icult widespreadly. Sang So Moon is a model of debate with manner and form. Also it has plentiful value as a speaking education materials. It could be possible to verify our traditional debate process and argument structure. I hope this study helps every people enlarging quality and quantity of a speech education materials.